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 DA 2019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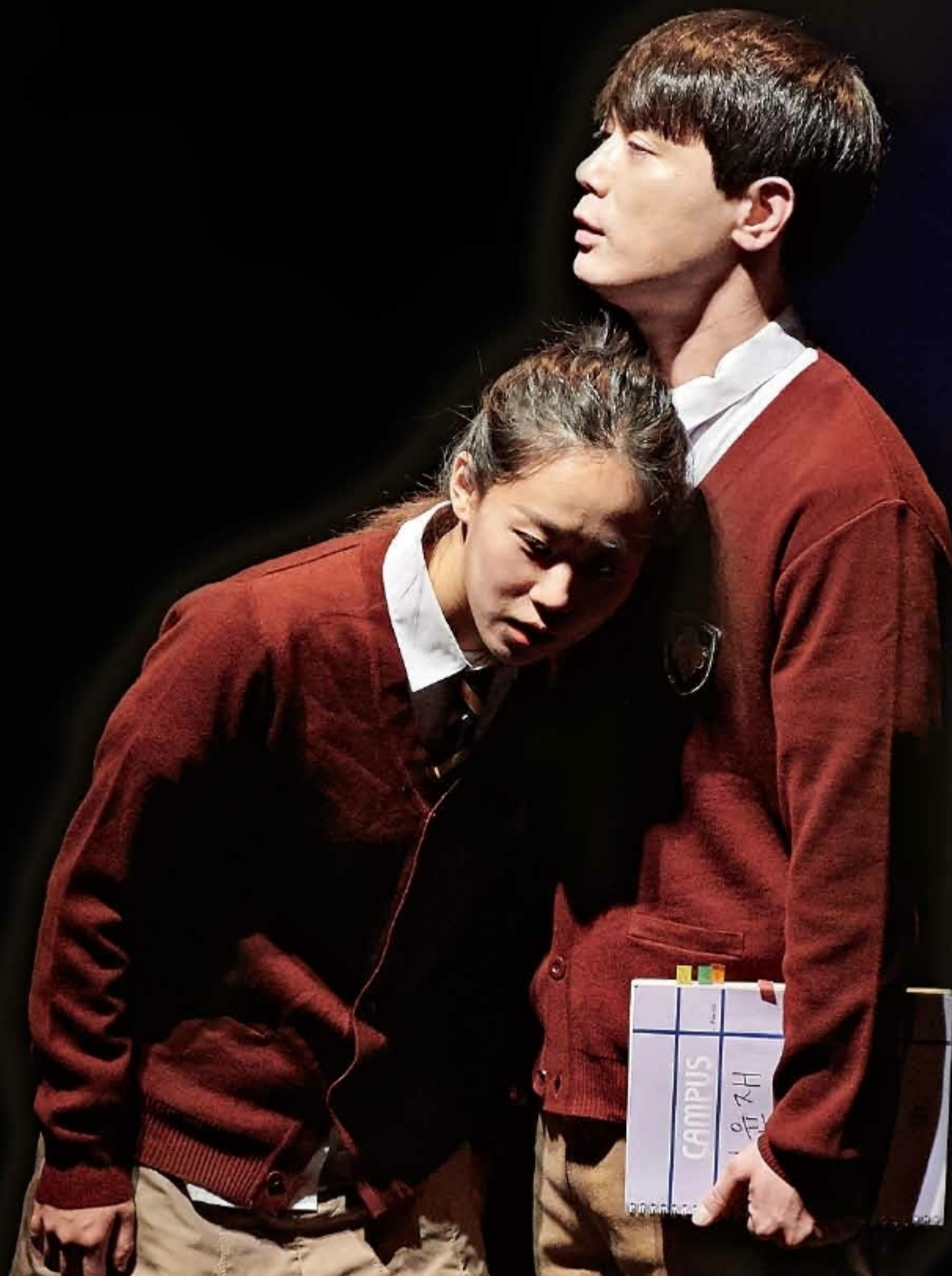
vol.08

부평구문화재단

vol.08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BO DA
보다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에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첫 인사드리는 이영훈입니다.

구민들과 성장해온 문화재단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대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2010년 출범한 이후
우수한 선례를 보여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앞선 재단입니다.
이런 강점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는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가정과 이웃에도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ODA

vol.08

시선



생각



인사이드 부평



발행인
이영훈

편집인
이미숙

편집기획
이선주, 현도연

취재·편집·디자인
Text &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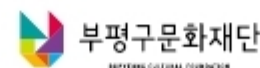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1월 25일

발행처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21440

전화
032-500-2000

팩스
032-506-9021

홈페이지
www.bpcf.or.kr



'보다'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평구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다



INFO



04 PEOPLE FROM ART

부평아트센터와
상주단체 앤드씨어터,
손에 손잡고~

12 CULTURE SCENE 1

부평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나자와 탐방기

24 VIEW FINDER 1

2018년,
함께해 더욱 특별했던
부평구립도서관

32 VIEW FINDER 4

나와 타인 모두 존중받는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평등한 Club 소모임 지원

38 ZOOM IN 1

계절과 음악을 만나
감정을익혀가는 이야기
연극 <아몬드>

46 ZOOM IN 4

일상을 유쾌하고 팔팔하게
'공간168'과 함께하는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54 ZOOM IN 7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60 WHAT'S NEXT?

68 INFO

08 MUSICITY

"함께~ 소리질러~"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Music Gathering 2018

16 CULTURE SCENE 2

예술로
부평을 지키는 방법

28 VIEW FINDER 2

부평의 꿈꾸는 청소년들
나누고, 만들고, 놀다

34 VIEW FINDER 5

2018 후원의 밤
"올해도 참 고맙습니다"

42 ZOOM IN 2

유쾌하고 따뜻한
경매의 새로운 얼굴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48 ZOOM IN 5

공감 오픈파티 개최
"Shall We Dance?"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전야제

56 NEWS

부평구문화재단·인천교통공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외

62 CALENDAR

18 LOOK INSIDE

노동과 예술
계급폭력의 그늘

30 VIEW FINDER 3

편하게 올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성문화센터로 자리하다

44 ZOOM IN 3

색에 대한 즐거운 경험
부평아트센터와 함께하다
컬러 그라운드

50 ZOOM IN 6

전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부평의 아름다운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부평아트센터와 상주단체 앤드씨어터, 손에 손잡고~

지역예술가들과의 상생과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일은 부평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 중 부평아트센터에 상주하며 경력을 쌓고 발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상주단체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관 이래 여러 단체가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그 문화적, 사업적 반경을 넓히고 있다. 2018년 부평문화재단 상주단체 앤드씨어터의 예술감독과 부평아트센터 조명감독을 만나 그들이 펼친 콜라보레이션을 들어보았다.



부평아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무대기술과 홍보면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상주단체 앤드씨어터 예술감독 고희진

Q 왜 부평문화재단이었나?
수년간의 서울에서의 작업을 통해 본래의 극단 소재지인 인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연이 생겼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며 인천에서 꾸준히 4년 정도의 작업을 해왔고, 인천의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 부평아트센터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관객의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시설과 위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었기에 부평아트센터에 상주단체로 지원했다.

Q 상주단체로 선정되고 2번째 공연으로 <근대문학극장>을 올렸다. 그간의 변화는?
연극공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습실과 사무공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극단은 이 부분을 위해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상주단체에 선정되고 1년 동안 사무공간과 독립적인 연습실이 제공되며 제작을 위한 비용도 지원되기 때문에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또 극장과의 협업을 통해 무대기술과 홍보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Q <근대문학극장>은 근대문학 중 2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공연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근대문학극장>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권피탈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문학으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연극으로 무대화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매년 다양한 형태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여러 창작자들과 협업하여 페스티벌 형태로 작품을 올렸다. 올해는 두 명의 연출을



“

상주단체에 선정되고 1년 동안 사무공간과 독립적인 연습실이 제공되고 제작을 위한 비용도 지원되기 때문에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극장과의 협업을 통해 무대기술과 홍보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섭외했는데 각 연출들의 다른 특성이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빛속으로>를 선보인 전유환 연출은 ‘본인 혹은 동시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깊게 고민하고 탐구하며 일본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 김사랑 작가를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의 고민을 무대 위에 드러냄으로써 이주와 난민 등 오늘날의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했다. <동백>을 연출한 박기원 연출은 소녀와 소년의 순수한 사랑이야기를 뮤지컬의 형식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풀어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빛 속으로>와 <동백> 두 작품 사이를 잇는 접점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근대문학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감각하는 인물들을 들여다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Q 예술감독으로서 관객들에게 보내고자 했던 메시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작품을 통해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장르의 다양성을 열어두어 관객들로 하여금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싶었다.

Q 부평아트센터 조명감독님과 콜라보레이션
앤드씨어터 기획 회의 중에 의견이 나왔다.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 첫 번째 공연 <도처의 햄릿> 때에는 앤드씨어터와 함께 작업하는 조명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맡았다. 그때 극장에 상주하며 조명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진수 조명감독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친분을 쌓게 되었다. 조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커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다. 그 때의 기억으로 조명감독님께 디자인 협업을 제안했고, 감독님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조명감독님이 몇 차례 리허설을 보시고 먼저 제안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열정을 보여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직접 오퍼레이팅까지 해주셔서 더 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한국근대문학극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창의적인 연극언어로 재창작하여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보인다. 2014년부터 여러 창작자들과 함께 근대문학을 연극으로 소개하며, 문학평론가의 해설이 있는 연극, 찾아가는 공연, 낭독극장 등의 형태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상주단체의 열정에
노련함의 빛을 더했습니다

●
박진수 — 조명감독



저는 부평아트센터의 무대기술팀에서 조명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연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조명 및 조명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공연장에서 기획 및 제작되는 공연의 조명디자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평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연장의 특징점은 해누리 공연장의 경우 전형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로 관객들이 공연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무대 내 원형무대와 슬라이딩 무대를 갖추고 있어 다른 공연장에 비해 더 많은 무대 전환 및 무대 구현을 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한편 달누리 공연장의 경우 블랙박스 공연장과 프로시니엄 무대를 합쳐 놓은 구조로 연극 및 음악공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대문학극장> 공연에 앤드씨어터와 협업을 했는데 모든 장면이 다 의미있지만 기본적인 조명 디자인의 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무대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빛에는 테두리의 경계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정체성의 모호함을 느꼈고 그것을 무대 위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협업은 처음은 아니지만 연극단체와의 작업이 오래된 일이라 즐거웠습니다. 상주단체와의 작업은 늘 즐겁고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앤드씨어터의 실험적이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Music Gathering 2018



‘부평’은 이제 단순한 도시명이 아닌 흥겨움이 흘러 넘치는 ‘음악도시 부평’으로 불리고 있다. 대중음악의 자산화에 앞장선 부평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은 기존의 ‘부평밴드페스티벌’을 확대, 부평음악도시축제인 ‘뮤직게더링’으로 개최해 지속 가능한 음악중심 문화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펼쳐진 이번 행사는 26일은 부평3동(신촌로83-90), 락캠프(부평), 버텨라인(신포동), 쥐똥나무(주안), 클럽에반스, 에반스라운지, 클럽FF에서 공연, 투어, 전시로 펼쳐졌고 27일은 부평아트센터에서 각각 음악도시포럼과 공연,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되어 총 7,0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음악도시 부평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함께~ 소리질러~”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Music Gathering 2018

음악을 모아, 부평으로~ 뮤직게더링

부평은 ASCOM 내외 클럽과 활동했던 뮤지션들을 통해 서양의 음악이 전파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이 시작된 중요한 역사적 배경지이다. 그러나 클럽이 사라지면서 그 흐름이 끊어지고 대중음악씬도 함께 사라진 부평에 축제를 통해 인적, 문화적 자원을 모으고, 새롭게 대중음악씬을 구축하고자 ‘뮤직게더링’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1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라이브클럽데이와 음악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음악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흥대의 라이브클럽협동조합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었다. 대중음악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의 연령층이 부평에서도 트렌디한 음악 문화를 경험하며 부평에



1차 원탁회의와
3차 시민공감회



10.26.
friday

찬란했던 과거를 오늘에 되살리다

인천의 라이브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도시 부평과
홍대 제42회 라이브클럽데이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라이브클럽에서 추천하여 뮤지션3팀을
교환, 공연하는 라이브클럽스테이지가 열렸다. 홍대의
클럽 에반스, 에반스라운지, FF 등과 인천의 클럽 락캠프,
버텀라인, 쥐똥나무가 참여하였다. 같은 날 이루어진
애스컴 시티 프로젝트는 1950~70년대 부평3동의
클럽문화를 재현하여 부평의 음악적 역사를 현재화하고,
음악도시 부평을 대표하며 장소성을 부여하는 콘텐츠로
공연과 토크, 전시로 진행했다.



음악적 고증을 통해 선곡된 대중가요,
팝음악 등으로 채워진 거리공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거리콘서트 싱어송라이터 강현규,
거리콘서트 관악 5중주 Soave,
거리콘서트 재즈보컬 트리오 말로



뮤직게더링
<Music Club>
달누리극장 -
라이프엔타임



<웰컴 투 신촌's 클럽>
전시 공간 내
동네탐방 투어 진행 중

'거리 콘서트'는 음악적 고증을 통해 선곡된
1950~70년대 대중가요, 팝음악을 선곡해 지역 뮤지션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토크콘서트 애스컴시티 나잇'은 당시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음악을 소개하고 감상하며, 그 시절 실제로
클럽에서 연주하고 활동했던 뮤지션의 이야기와 함께
연주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동네탐방 애스컴시티 투어'는 임종우 작가(지역화가,
부평3동 출신 및 성장, 당시 어머니미 미용실 운영)가 클럽이
밀집했던 지역의 주요 골목인 신촌로 일대를 해설하며 함께
돌아보고 클럽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부평의 음악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 웰컴 투 신촌's 클럽'은 3가지 컨셉으로 전시가
구성되었다. 부평신촌지역 클럽분포도를 통해 그 당시
클럽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시와 1970년대 실제 운영되었던
클럽 송도홀의 소품전시(LP, 술병, 카세트테이프, 성냥갑 등),
1960~70년대 활동했던 섹스포니스트 강오식의 구술채록
영상 및 자료로 전시가 구성되었다.

뮤직게더링 구름광장-
잔나비의 공연장면



10.27.
saturday

국내 대중음악의 거점, 부평 음악도시로 미래를 열다

뮤직게더링 둘째날은 라이브클럽협동조합 & 음악도시
부평 MOU 체결식과 음악도시 포럼으로 문을 열었다.
MOU를 통해 앞으로 부평의 대중음악생태계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음악중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포럼은 지역 대중음악인 구축을
위한 홍대와 협력 및 네트워크 방안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
도시와 홍대의 대중음악인에 대한 사례 발제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조 발제는 음악도시 부평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최정환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자가
말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 및 문화도시 추진 계획(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지역 대중음악인으로서 홍대 씬의 성공과 한계 사례 발표
(정문식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아시아에서 지역 도시에서의
대중음악 씬의 사례(신현준 성공회대학교 교수,
대중음악 평론가)의 발제가 이어졌다.
공연은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과 달누리극장에서
뮤직시티(Music City), 뮤직클럽(Music Club),
뮤직라운지(Music Lounge) 3개의 무대로 진행되었다.
잔나비, 선우정아, 마더바이트 등 현재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성 있는 아티스트, 아시아 밴드까지
총 9개팀이 출연했다.



CULTURE
SCENE 1



부평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나자와 탐방기



생활문화센터를 오픈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일본 아마추어 대상 문화예술공간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으로 선진사례 탐방을 가게 되었다. 생활문화영역에서 가나자와의 시민예술촌은 성지와도 같다. 많은 문헌과 구전에서 형성과정과 활용계획, 의견 수렴과정 등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가나자와를 선택했다.

탐방자 최성지(문화사업팀장), 노수진(정책담당), 정혜림(생활문화담당)
글 최성지(문화사업팀장)

가나자와, 내발적文化정책 지향, 외래적 개발 억제

가나자와는 이시카와현 소재로 오랜 세월의 깊이와 연륜을 간직한 마을로 면적 467.77km², 인구 약 46만명으로 교토와 나란히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도시로 전쟁과 지진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아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가나자와 성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마에다 가문의 통치하에서 학술 문화와 예술, 전통 공예에 힘을 쏟아왔다. 에도시대부터 문화도시를 표방한 역사와 전통 덕분에 도자기, 염색, 칠기, 금박 등 전통적 공예산업은 물론 직물, 간장, 술 등의 재래산업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특히 금박이 유명하며, 일본 전국의 98%, 은박은 일본 전국의 100%를 제조한다.

가나자와역의 랜드마크인 츠즈미문은 일본 타악기 '츠즈미'를 본따 설계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지만 이상정물은 어느 도시보다 인상적이다.

가나자와는 본래의 지역문화를 잃지 않도록 내발적(內發的)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외래적 개발을 억제해왔다. 특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옛 아마토(大和) 방적 공장을 시가 매입해 벽돌창고를 재정비하여 1996년 8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金沢市民芸術村)을 개설하였다.

문화 창조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민

예술의 창조활동을 하고, 시민이 부담 없이 연극, 음악, 무용, 미술활동 등의 연습, 제작, 연수 및 성과발표를 하는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알찬 시민문화 향상과 풍부한 지역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구 방적회사 창고단지를 시민의 기억보존의 장소로 남기는 동시에 문화, 예술 활동의 장으로 재생하여 '시민이 주역'을 시설운영의 기본으로 한다. 시민예술촌은 일본 전국의 공립 문화시설 중에서 처음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고려한 저요금 제도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1
시민예술촌 전경
파노라마

2
가나자와 역

3
시민예술촌
고토촌장과 함께

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을 중시하는 운영방법을 도입하고, 공립문화시설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디렉터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를 대표하는 디렉터로서 민간인을 위촉하여 시민예술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가나자와 고토 촌장과 처음 인사한 곳은 사무동이었다. 대학교수였던 고토 촌장님은 시민예술촌에 정착한 지 3년 남짓 되었다 한다. 몸에 밴 자상함과 오랜 강의를 통해 능숙해진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시민예술촌의 최고 어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은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자세였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예술촌

전반적인 시민예술촌에 대한 설명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용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 시설별로 연습과 발표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직접 무대를 제작 하고, 운영, 실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 시민예술촌의 핵심이었다.





4

5

시민예술촌은 각 공방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플랜사업 비용의 확보로 공간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제공과 예술가와 함께 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는 사람이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문화를 키우는 이 시설의 역할”임을 강조하는 운영방침에 따라 시민디렉터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디렉터를 선출하여 공간의 이용방법, 사용규제, 공간관리, 사업계획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재단의 각 행정 실무자들이 경영과 화계부에서 시민디렉터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디렉터는 1달 5만엔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근무시간과 뽑는 분야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시민예술촌은 각 공방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플랜사업 비용의 확보로 공간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 제공과 예술가와 함께 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되 스스로 책임의식을 중시하여 공방별 디렉터의 도움을 받아 공간의 준비과정, 공연 시 관객모객, 철수까지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따라서 기획, 공연(전시), 홍보, 운영 모두를 시민들이 직접해야 하므로 아마추어의 수준이 높아지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공간사용 독점을 막기 위한 심사제도와 전문가가 공간 사용 시 일정금액 이상의 공연 또는 전시 입장료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 제도를(입장료 3만원 미만) 운영하여 시민이 우선인 공간을 마련한 점도 운영방침



4
PIT1
멀티공방 2

5
PIT2
드라마공방

6
PIT5
아트공방내부

의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시민예술촌을 운영하는 곳은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으로 21세기 미술관, 창작의 숲, 공예공방 등도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어서 부평구문화재단이 생활문화센터, 아트센터, 도서관 등의 공간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같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1997년부터 경관, 조명, 시설디자인,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이나 운영시스템 외에도 건축·조성 과정에서 시민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현재 전주와 청주 두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얼마 전에도 시민예술촌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촌장이 그 지역 관계자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가나자와가 공예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유구한 역사적인 배경과 시민들 의식 속에 흐르는 DNA가 있었기에 지금의 시민예술촌과 가나자와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는 오랜 시간이 축적된 역사적인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평구와 도시 분위기, 운영 등 공통점이 많지만 그들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거기에 시민의 힘이 더해져 이루어내는 DNA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부평만의 DNA로 부평만의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한다.

6

가나자와 도시투어

겐로쿠엔 — 兼六園

일본 3대 정원으로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임천회유식 대정원의 특징을 보존한 정원으로 본래 가나자와성의 외곽에 속해 있었으나 가가번 제5대 영주 마에다 쓰나노리가 1676년 건축작업장을 가나자와성 안으로 옮긴 뒤 렌치오친(정자)를 지어 그 주위에 정원을 조성하여 당시 렌치테이 등으로 불렸으나 1759년 가나자와 대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1874년 5월 7일 일반공개 이후 1922년 3월 8일 「사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법」의 규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된 겐로쿠엔은 1950년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거듬 명승 지정을 받았으며, 1985년 3월 20일 특별 명승으로 승격되었다. 11월 1일은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부터 나뭇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끈으로 나뭇가지를 동여매는 유키즈리 작업이 시작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촬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절과 관련된 정원 유지과정도 관광요소로 활용되는것을 보면 마이크로 관광의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히가시차야가이 — 東茶屋街

동쪽에 있는 찻집 거리라는 뜻의 에도시대 유명한 요정 거리로 가나자와역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강변을 따라 고풍스런 목조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리를 볼 수 있다. 에도시대 지어진 음식점과 찻집 등 당시 거리가 잘 남아있어 길 전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게이샤거리로도 유명하다. 건축물 보존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사진촬영과 차와 다과를 즐기 위해 관광객이 다수 있었고, 전통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는 일본인도 있어 우리나라 북촌을 연상시킨다.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시민예술촌보다 21세기미술관은 현대적인 시설이나 히가시차야가이와 같은 보존된 장소가 훨씬 많이 알려져 있다.



21세기미술관 — 金沢21世紀美術館

21세기미술관(17만㎡, 지름112.5m의 원기둥형태, 지하2층, 지상2층)은 2004년 10월 개관하였으며, 시 중심부에 있던 가나자와대학부속 초중학교가 이전하면서 전통이 강한 도시 이미지를 보완하는 미래지향의 미술관 조성되었으며 겐로쿠엔과 마주보고 위치한다. 2004년 가나자와 대학 부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있던 터에 조성한 미술관으로, 1980년대 이후의 현대작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 설립 당시 지역내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으나, 전통과 현대예술의 결합을 고민하여 미술관을 건립하였고 이후 한해 많은 수의 관광객과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 미술관의 일부공간을 시민갤러리로 구성하여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시민갤러리 역시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내부 전시물은 현대적인 작품으로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겐로쿠엔(정원)과 관련된 전시나, 목을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있어 지역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21세기미술관 설립 당시 현대미술을 다루는 시설 설립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과 현대 예술의 결합을 고민하면서 미술관을 설립하였고, 미술관 설립 이후 외관과 내부가 유리를 통해 연결되어 보여지는 건축물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지금은 너무 많은 수의 관광객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CULTURE
SCENE 2

예술로

부평을 지키는 방법



2018년 작년 11월, 부평아트센터에는 꽃다발을 든 어린 친구들과, 가족들이 로비에 가득 찼다. 긴 대기 줄은 2층까지 자리를 가득 채웠다. 로비에서 서로 인사하며 상기된 표정으로 모두가 기다리는 공연은 바로 부평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부평구에는 부평구의 순수예술을 지키고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3 단체의 부평구립예술단이 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부평구립여성합창단, 10주년을 맞이한 부평구립소년소녀 합창단, 또 풍물도시 부평에 중심이 되는 부평구립풍물단으로 예술로 부평을 알리는 부평의 문화사절단이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부평구 거주 여성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2000년 창단 하자마자 인천합창제 대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여러 전국 합창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아름답고 통일된 음색과 신비로운 화성감이란 평을 받았다. 또한 여성합창단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기도

하며 음악을 통한 행복 나눔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2019년 5월 16일(목) 19:30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부평의 역동성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힘차고 화려한 20주년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지난 제 18회 정기연주회에서 큰 환호를 받았던

<애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합창단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예술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단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010년 창단되어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무엇보다 변화에 강한 합창단이다. 고전음악, 종교음악, 한국전통음악과 현대음악 그리고 복합장르인 뮤지컬에 이르기

까 지 어린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그대로 반영하듯 어떤 합창단 보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연평균 10회 이상 다양한 공연행사에 초청받아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표로 부평을 알리고 있다.

매년 11월 개최하는 정기연주회에서는 일반적인 움직임 없는 합창이 아닌 이야기를 가진 공연으로 색다른 합창공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예술단의 공연은 부평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니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힐링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부평구립풍물단

지난 10월 80만명의 관람객이 어울려 화합했던 부평풍물대축제 중심에는 부평구립풍물단이 있다. 올해로 12년째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부평구립풍물단은 한국의 흥과 놀이, 농경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평구립풍물단은 풍물을 배우고 경력이 있는

단원으로 입단부터 과정을 걸친다. 그렇게 구성된 풍물단인 만큼 제19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일반부 단체 대상, 제3회 계양산 전국 국악경연대회 풍물부문 우수상 등 2017년도에만 큰 대회에서 3번이나 수상하며 높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 어울려 하는 단체공연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사하는 기술도 수준급 실력을 가지고 있어 매년 보여주는 정기연주회가 풍성하다.

부평의 구립예술단들은 매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꾸준한 실력을 유지하도록 정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지역에 다채로운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지역의 문화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소개한 부평구립예술단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문화예술동호회부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계속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예술로 풍성한 삶을 누리보자.



LOOK
INSIDE



노동과 예술

계급폭력의 그늘

글 홍경환(미술평론가)

자본이라는 세속화된 종교

사유제 아래에서 행해지는 당대 자본지배체제는 인간의 노동에 야박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마치 기계 부품처럼 다뤄진지 오래다. 같은 한 끼의 식사라도 가난한 이들에겐 비싸며, 그 가여운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노동 착취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굴러간다.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의 말마따나 노동력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이 잉여가치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예술계라고 다를까.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고 억압해 온 자본주의의 역사 앞에선 예술가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100여 곳이 훨씬 넘는 공립미술관과 600여 갤러리에 몸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어 버릴지 모르는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간다. 창작자들과 매개자(비평가, 기획자 등)들은 년 평균 600만 원대의 수입을 유지한 채 근근이 삶을 잇는다.

이들은 생존위기에 몰릴 만큼 조들린 환경에서 생활한다. 부익부빈익빈은 더 이상 사회적 표상이 아니다. 더구나 빈익빈의 모델은 기성세대보다 청년 세대 예술가들에게 훨씬 더 친숙하다. 청년예술가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노동하지만 받는 건 더 적

은 소득불평등, 분배불평등의 중심에 있다.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고 그나마 획득 가능한 것들조차 '재능기부'와 '열정페이'라는 미명 아래 갈가리 찢기고 빼앗기기 일쑤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돈만 많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릇된 믿음과 구원을 약속해온 '세속화된 종교'(Walter Benjamin)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간다. 어쩌면 이를 새로운 차원의 아프레게르(apres-guerre(프))라 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청년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기성 가치관의 결핍, 어둡고 탁한 현실이 생성한 허무의식과 불안감, 어떻게든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고뇌의 몸부림 등에서 그렇다.

노동착취와 재능기부

예술계에서 '노동착취'와 '재능기부'는 한 곳 차이이다. 어떤 관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재능, 노동, 능력이라도 사회적 기여인지 공짜노동 혹은 자원봉사인지가 달라진다. 선의이거나 자발적 합의 여부도 그 둘을 가르는 잣대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대체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의 몫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조영남의 미술계 대작 관행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 8년 동안 조영남 씨 조수로 일하며 각 작품마다 90% 이상의 그림을 300여점이나 대신 그려줬다는 한 무명작가의 당시 폭로는 조영남이라는 세 글자를 삼시간에 사회, 문

화계 키워드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발언이 덧붙여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그런데 조영남 대작 논란과 관련해 또 하나 이슈가 된 건 작품 한 점 제작하는 데 받은 공임이 10만원에 불과했다는 무명작가의 주장이었다. 조영남 씨 자신은 작품 한 점에 수백, 수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90%이상 그림을 그려준 이에겐 고작 1점당 10만원을 줬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대우였다.

우린 이 대목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본계급이 그렇지 못한 이에게 가하는 횡포를 엿본다. "이 정도면 돼지 될 더 바라느냐"는 가진 자들의 판단 아래 자행된 인간의 수단화, 도구주의적 인간관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조영남 씨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 아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을 주니 노예처럼 대해도 된다는 의식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이른바 '계급폭력'이다.

계급폭력의 희생자들

자본을 포괄한 계급폭력은 미술계 내 나쁜 관행의 선례를 남기고 있다. 지위와 권력, 돈과 권위를 배경으로 한 '갑질'에서부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불행한 습속까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섭외, 심사, 평가 선정의 선택권을 쥐고 있는 기타 경우까지 포함하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예를 들면, 과거 한 조각가는 모 미술관으로부터 재능기부형식으로 작품을 기증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상이라곤 달랑 운송료뿐이었다. 작가는 잠시 갈등했지만 미술관 소장품이 된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은 채 결국 작품을 미술관으로 보냈다. 이는 미술관의 권위를 이용해 소장품 목록을 거저 채우려는 질 나쁜



에이면서 노동력의 교환가치를 배제한 사례이다. 여기에 차후 합리적 지불에 제동을 거는 좋지 않은 기록이기도 하다.

결은 같지 않지만 미술관이 ‘미술관 프라이즈’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시장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작품을 매입하는 것이나, 몇 만원 내외의 초현실주의적인 원고료로 비평을 써달라는 기관, 물리적 거리가 예사롭지 않은 곳까지 불러놓곤 겨우 수만 원 남짓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칼자루를 쥔 이들의 폭력과 같음된다. 모두 공익×책임감×소명의식 따위를 앞세워 소중한 재능을 무료로 사용하려는 변질된 노동이요, 유무형의 계급주의를 바탕으로 한 착취의 초상이다.

이밖에도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 흔하다. 어시스턴트로 첫발을 내딛는 대학-대학원생을 포함한 청춘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명작가를 보조하는 무명작가들은 ‘배움’ 내지는 ‘민생고’를 이유로 노동력을 판다. 사회가, 미술계가 무관심한 사이 계급폭력이 행하는 잉여가치의 전유에 대응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한다.

비현실적인 예술노동 정책

앞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한 개인의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기여도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인 경우가 적지 않다. 강의를 줄여들까봐,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이기에, 학연이나 지연, 꿈을 버리지 못해, 알량한 일거리라도 꿰길까 싶은 두려움 등을 이유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자본자체이든 상아탑이든, 상하 권력 관계에서 파생되는 노동처우에 관한 불편한 호소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하지만 돈 없고 배경 없이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왜 돈에 연연하느냐는 식의 괴이한 발상을 접하면서도 그저 스스로를 자책하며 오늘을 ‘살아 넘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애써 참는 것이 전부다. 자신이 계급폭력의 희생자인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저항할 힘이 없다.

그나마 근래 들어 창작자들의 노동여건에 관한 정부의 시각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허나 그저 조짐뿐이다.

예술생태를 알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마인드는 그대로다. 대표적인 예가 ‘미술창작대가’ (아티스트피: artist fee)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부터 작품의 전시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노동행위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예술계 목소리를 반영해 전시에 참여 시 작가비와 사례비를 책정한 ‘미술창작대가 기준안’ 마련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최근 뚜껑을 연 ‘미술창작대가기준안’은 출품 작품 수에 따른 작가별 배분율과 신작이나 구작이나를 우선하는 작가비 산출산식을 담고 있고, 소고기도 아니건만 사례비의 경우엔 경력을 기준으로 가나다 등급을 매겼다. 경력을 산정하는 세부 공식 또한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에 따라 점수를 달리했다.

이 기준안의 문제는 여러 가지다. 일단 작가비는 하나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 수와 관계없이 동일분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전과 그룹전 횟수에 따른 점수는 개인 간 자본유무와 밀접하므로 무의미하다. 결국 미술창작대가 기준안은 박근혜 정권 이후 약속한 것이기에 시행하긴 해야 하는데 미술생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비현실적이면서 엉성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침묵하는 지식인들

그렇다면 전문가 혹은 지식인들이라도 생태에 반하는 정책과 일상에 만연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야하지만, 그들의 입은 천근만근이다. 그들이 노동의 대가에서 자유롭다면 또 모른다. 허나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조차 창작자들의 입장과 오십보백보다. 개도 물어가지 않을 체면 때문에 함구하는 사이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는 대가의 불균형은 손쓸 틈 없이 예술계 내 전방위로 확산되는 중이다.

사실상 비평가를 비롯한 미술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구조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가장 근접한 사례로 지난 4월 정부까지 나서 『미술진흥중장기계획 2018-2020』을 발표하며 비평가에 대한 처우개선 및 양성 기조를 밝혔지만 한해가 저무는 현재까지도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6천원 수준의 고료(200자 원고지 1매 기준)를 책정한 채 평론을 청탁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이 드물지 않으며, 각종 수당 역시 겨우 몇 만원에 불과한 곳도 수도룩하다. 심지어 한 달 내내 작성한 평론을 보냈더니 원고료로 달랑 2만원을 입금해 충격을 안긴 지역재단도 있다. 이는 통상 100만 원대의 평론비와 기타 원고료 3-4만원(200자 원고지 1매 기준)에 비하며 터무니 없는 액수다.

살아가는 곳은 현실인데 노동의 대가는 초현실주의적인 현재를 말하면 혹자는 ‘안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렇다. 그런데 스스로도 민망해서인지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로 섭의 승낙 후 또는 현장에서야 상세한 안내를 한다. 설사 알게 된들 돈 몇 푼에 연

연하는 쫓쫓한 사람인냥 취급될 듯싶어 평론가들의 다수는 노동의 값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원체 돈 애기를 꺼리는 미술계 분위기에다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책임감, 역할론 따위가 대두될 경우 마음과 달리 입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들의 걸과 속을 달리하게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싶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전업비평가가 손에 꼽히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현재의 일토당도않은 보수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훗날 후배들에겐 선배들의 사례가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란 판단에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기관 관계자들은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야 턱없이 부족함을 이해하지만 그 더디고 복잡하며 개념 없는 행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보니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을 바꿔야 옳는데 그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어느새 계급폭력이 되어 예술계를 옥죄든다.

인식재고와 행정의 개선

스스로 행하는 재능기부 자체를 비롯해 사회기여로서의 기부, 진지한 여가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일상에서 쉽고 재밌게 ‘나눔’을 행하는 ‘이지 오블리주(Easy Oblige)’는 격려할 만하다. 자발적 나눔이 증가하고 나무뿌리처럼 넓고 깊게 뻗어나간다면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이타심의 가장 직접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옳다. 다만 순수한 재능기부를 악용하는 자들에 의한 인식적 폐단과 답습을 고려해야 하고, ‘재능기부=공짜’라는 비생산자들의 그릇된 의식을 부추기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생산자들의 자기권리 찾기와 미래지향적 태도는 중요하다. 자신의 뜻과 다르게 누군가는 예술노동의 대가를 무시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데다, 합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후배 또는 다른 예술가들을 향한 불편한 관습의 생성에 힘을 보태는 ‘몹쓸 기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몹쓸 기부를 해체하고 정당한 보수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미술계 생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부



터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예술가의 노동대가에 관한 낡고 남루한 인식은 전문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를 외면하는 정책자들의 낙후된 인식은 관련 인적 기반을 위축시키고 많은 부분을 아마추어화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짜들은 인적 기반은 한국문화예술의 질적 경쟁력 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이제부터라도 열정과 애정을 빌미로 한 재능기부라는 병풍 속에 예술가들을 앉히는 습관을 고쳐야 하며,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 노동과 시간은 공짜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식변화는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노동 가치에 관한 소외의 의미적 전제조건은 노동착취가 의존하는 전제이고, 자본과 권력의 노동착취는 계급과의 상관성, 즉 지배적인 생산관계로서 실존하는 자본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성된 실존의 전제인 계급폭력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사고전환의 틈이 만들어진다. 이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문할 것은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반영하려는 노력과 미술생태에 대한 학습이다. 그래야 속도를 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개가 원만하지 않다면 불합리한 예술계 노동체계, 계급폭력의 만행은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변화의 내부에는 초라한 대가와 직함을 교환하느라 짐짓 모른 척 침묵해온 미술계 문화곡예사들의 반성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 홍경환은 미술비평가, 칼럼니스트, 전시기획자다. 2000년 월간 《미술세계》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퍼블릭 아트》, 《경향 아티스트》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국립현대미술관 정책자문위원,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공허한 제국’ 예술감독, ‘강원국제비엔날레2018’ 예술총감독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림문화재단 이사,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위원, 서울시 미술관박물관 등록 심의위원, 서울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공공미술, 도시를 그리다』 외 다수의 비평집이 있다. 그의 미술과 예술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주간경향》, 《YTN》, 《강원일보》, 《일간 메트로》 등의 고정칼럼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2018년 부평구문화재단은 특별한 일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흥겨운 주민들을 위한 공연과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 그리고 자녀의 문화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전문적인 교육들.

예술과 문화, 생활과 학습의 만남을 주선하는 부평의 여러가지 모습에서 지역과 세대의 문화예술적인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Viewfi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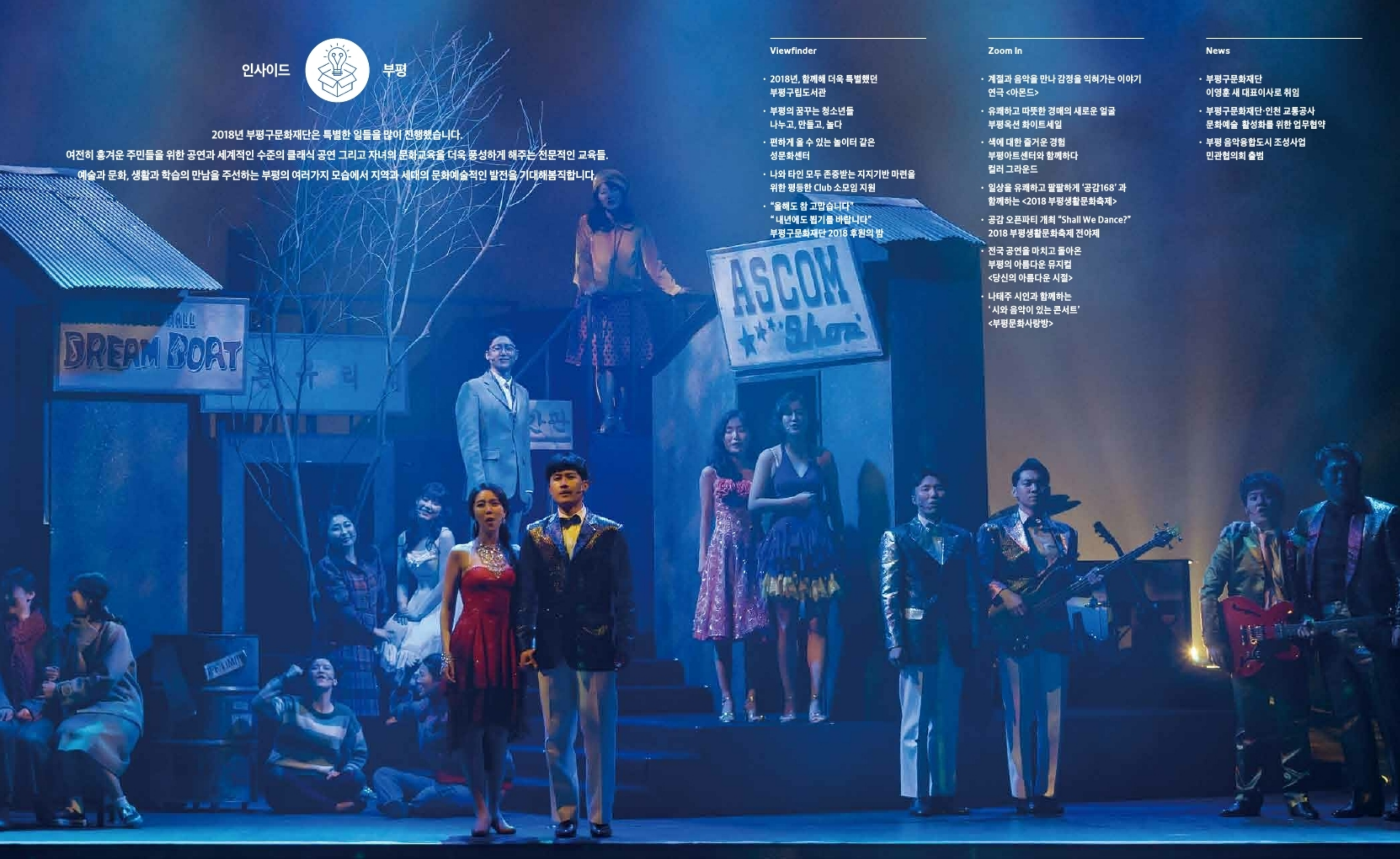
- 2018년, 함께해 더욱 특별했던 부평구립도서관
- 부평의 꿈꾸는 청소년들 나누고, 만들고, 놀다
- 편하게 올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성문화센터
- 나와 타인 모두 존중받는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평등한 Club 소모임 지원
- “올해도 참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부평구문화재단 2018 후원회 밤

Zoom In

- 계절과 음악을 만나 감정을 익혀가는 이야기 연극 <아몬드>
- 유쾌하고 따뜻한 경매의 새로운 얼굴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 색에 대한 즐거운 경험 부평아트센터와 함께하다 컬러 그라운드
- 일상을 유쾌하고 팔팔하게 ‘공감168’과 함께하는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 공감 오픈파티 개최 “Shall We Dance?”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전야제
- 전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부평의 아름다운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News

- 부평구문화재단 이영훈 새 대표이사로 취임
- 부평구문화재단·인천 교통공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민관협의회 출범





2018년, 함께해 더욱 특별했던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에는 구립도서관이 6개관이나 있다. 양질의 도서 비치뿐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부평구립도서관 6개관은 도서관마다 테마를 선정하여 관련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타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키우기 위하여 진행 중인 <부평구립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은 2019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

부평도서관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층 종합자료실내에 <Music Zone>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 청음 시설도 구비하여 다양한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스캔들로 살펴보는 한국클래식 100년사>(송헌민 음악평론가)를, 근대 음악 역사와 한국클래식 이해의 인문학 강좌로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예술특화도서관으로서 이용자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관련분야의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화된 도서관 브랜드화를 구축한 일환이었다.



주소 부평구 부일로83번길 46(부개동)
운영시간 월 : 휴관 / 화~금 :
1층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층 종합자료실 09:00~22:00 /
토~일 : 09:00~18:00
문의 032-505-0062
홈페이지 www.bppil.or.kr



영어

삼산도서관

삼산도서관은 영어를 주제로 원어민 영어강좌, 영어 뮤지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산 뮤지컬 잉글리쉬, 영어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해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자료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영어와 뮤지컬을 접목시켰는데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12회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원혜은(인천 어린이영어뮤지컬 단장) 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체험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하면서 학습자간 상호협동력을 향상시켰다.

주소 부평구 부평로 445(삼산동) 운영시간 월 : 휴관 / 화~금 : 1층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층 영어-멀티미디어실 09:00~22:00, 3층 종합자료실 09:00~22:00 /
토~일 : 09:00~18:00 문의 032-330-7012~14 홈페이지 www.bppil.or.kr



생태환경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 책축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 현장 탐방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생태 책축제는 생태환경에 맞춰 책과 함께 어우러지는 책 축제를 통하여 도서관과 생태환경에 대해 알고 가까워질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책축제는 '매직쿠키'와 '수상한 사탕가게' 그림책 스토리텔링 마술 공연, <기생충박사 서민의 홀릭홀릭> 서민 작가와의 만남, <어치와 참나무> 원화 전시, 닥종이 전시 및 짚풀공예체험, 스피클레이로 비누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종이콘 잠자리 만들기, 베소 지우개 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등의 행사로 펼쳐졌다.

주소 부평구 길주남로 166(부개동) 운영시간 월: 휴관 / 화~수, 금~일: 09:00~18:00 / 목: 09:00~20:00 문의 032-505-0612~13 홈페이지 www.bppl.or.kr



다문화

청천도서관

청천도서관은 2013년 개관 이래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오! 청천도서관 고! 세계문화축제!> 라는 프로그램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개 및 체험을 통하여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상호 문화 이해 기회를 마련하고 더불어 전 연령층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기념공연(퓨전국악밴드 축하공연, 5주년 영상 감상 등)과 체험행사(이심전심 세계문화여행, 신스틸 순간포착 등)와 더불어 전시행사(신비한나라, 신기한 책 등)이 이어졌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3 운영시간 월: 휴관 / 화~금: 1층 어린이자료실 09:00~18:00, 2층 종합자료실 09:00~22:00 / 토~일: 09:00~18:00 문의 032-330-9171~3 홈페이지 www.bppl.or.kr



사회교육

갈산도서관

갈산도서관은 사회문화를 주제로 관련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경제, 법, 교육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별 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나도 우리동네 법대장> 프로그램은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법에 대해 보다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54 운영시간 월: 휴관 / 화~일: 09:00~18:00 문의 032-362-0261~2 홈페이지 www.bppl.or.kr

가정육아

부개어린이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동화와 함께하는 노래야 놀이야>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영유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책을 통한 음악(악기)놀이를 실시했는데 국악동화, 전래동화, 동시를 노래, 놀이와 함께 즐기는 활동으로 채워졌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6 운영시간 월: 휴관 / 화~일: 09:00~18:00 문의 032-505-1131~2 홈페이지 www.bppl.or.kr



행복나눔 김장재능 봉사에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들과 가족들

미디어로 하나된 청소년들이 펼쳐는 꿈의 향연



부평의 꿈꾸는 청소년들 나누고, 만들고, 놀다

부평의 청소년들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라다. 자기만의 고민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나눔을 김장봉사로 실천하고 자기의 꿈을 영상으로 만들어 소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의 청소년들에게서 느껴지는 활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함께해서 좋은 세상

지난 11월 17일(토)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인 '함께해서 좋은 세상'을 진행하였다. 청소년과 가족 50팀 총 200명이 참가한 이 행사는 올해로 벌써 7년째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김장재능봉사'로, 각자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들고 삼삼오오 수련관으로 모였다. 주정연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봉사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정성스레 포장까지 하며 어려웠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펼쳤다.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배울 수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 간 즐거운 이야기 꽃도 피어나며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한 참가자는 "아직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특별한 경험도 되고 이웃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일 봉사활동 후, 지역에 어려운 가정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으며 내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청소년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영상인들의 꿈을 비추다, 들여다 BODA

제3회 부평청소년영상제 현장

부평에서 유일한 영상미디어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미래 영상인을 꿈꾸는 청소년과 영상콘텐츠로 소통하는 청소년 등 '미디어로 하나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제3회 부평청소년영상제 - 스포트라이트'가 개최되었다. 지난 11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독립영화부터 인천 지역 내 영상미디어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작품, 인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만든 콘텐츠 그리고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영상기자단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11월 16일(금) 1일차에는 (사)인천영상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 프로그램인 '별별씨네마'를 진행, '땀뽕걸즈' 작품을 상영하였다. 수련관 영상체험실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참석한 구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겼던 작품으로 기억된다. 17일(토) 2일차에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미디어센터 기관의 후원으로 초청작 상영을 진행하였고,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부개고등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등 학교 방송반에서 제작된 작품도 큰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았다. 청소년영상기자단이 주최한 만큼 직접 만든

작품도 상영하여 그 의미를 더 했다. 제3회 부평청소년영상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초청, 이벤트 준비, 물품 준비, 홍보 등 영상제에 필요한 역할들을 직접 정하고, 의견과 내용들을 직접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준비한 청소년영상제로 발돋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상미디어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은 2019년 청소년자치조직에 모집에 지원하면 된다.

수험생 청소년들을 위한

'수험생 즐기GO! 풀GO!'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는 부평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전환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수험생 즐기GO! 풀GO!'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환기 청소년들에게 펼쳐지는 미래를 응원하며 그동안 쌓인 학업, 대입, 취업 등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전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2018년 수험생 즐기GO! 풀GO!에서는 부평구 관내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1,35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명사강연, 레크리에이션, 핑거스타일기타리스트 음악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명사강연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난화 만화(前 대학생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겸 웹툰작가인 '표지화' 작가가 <나의 삶, 주도적으로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이며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하였다. 더불어 전문레크리에이션 MC '장진호'의 레크리에이션으로 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핑거스타일기타리스트 '정선호'의 힐링기타공연이 이어졌다. 기타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가요와 자신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연주하며 청소년들의 앞에 펼쳐진 미래를 응원하였다.



대입 스트레스와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행사로 채워진 '수험생 즐기GO! 풀GO!'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한마당축제로 펼쳐진 부평청소년페스티벌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여는 청소년!

2018 부평청소년페스티벌

2018 부평청소년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이슈가 있는 축제로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해 밝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까지 인천부평 청소년 한마당축제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페스티벌은 댄스경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동아리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되었고 부평필하모닉청소년오케스트라가 개막식 식전 공연을 진행했다. 댄스경연대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대회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는데 예선전을 통해 올라온 본선팀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무대를 빛내주었다. 그림그리기대회는 초등학교는 '내가 꿈꾸는 도시', 중고등학교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표현, 생각들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아리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대회로 부평관내 동아리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무대로 진행되었다. 체험마당은 부평 관내 학교동아리, 유관기관, 관공서 등 여러 곳에서 참여해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는 로봇코딩, 드론체험, 슈링클스, 악세사리 만들기, 우드버닝 액자만들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부평청소년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향상과 역량개발, 청소년들이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숨은 끼와 재주를 발굴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IEW
FINDER 3

편하게 올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성문화센터로 자리하다

작년에 본 아이가 올해 또 성문화센터에 방문했다. 센터는 이 아이가 내년에도 방문하고 싶어지도록 즐겁게 놀며 배울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부평구 관내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올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되길 바란다. 아이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늘 열려 있는 성문화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굳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놀 가는 놀이터가, 마을 도서관이, 골목 등 모든 공간이 성평등 시각으로 재편된다면 그곳이 바로 성교육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01 ~~~~~

극을 활용한 성교육

인형극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유아 및 초등부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기르고 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유아, 초등학교 1-2학년 초등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뢰기관을 찾아간다. 인형극 제목은 '우리 몸에도 신호등이 있어요.'다. 몸과 마음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멈추는 안전맨"이 등장하여 참여자들과 같이 지혜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해가는 설정이다. 총 4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부, 2부는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침범 상황을 알아보고 3부, 4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른들이 아동의 몸을 함부로 만지려는 상황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극 참여로 배우와 학생들이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교육이 마련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위험상황에 따른 감수성과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02 ~~~~~

방학특강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 참여자들과 즐거운 놀이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초등 저학년은 '성평등한 가족설계하기'와 초등 고학년은 '외모 품평회 사회를 고발하다.'월경, 그 담대한 파티'를 총 4회 진행했다. 매 회 프로그램 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사회속에서 요구되는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생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래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경험을 경청하고 이해를 통해 확장되는 관계를 경험한 소중한 기회였다.

03 ~~~~~

학교축제지원

지역의 학교축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적의사결정능력 향상 및 또래 성문화에 대한 공감과 비판의 시각을 갖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돕고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심대의 성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학교축제지원 "우리 TONG 하자"를 주제로 학교 축제 지원 대상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피임실천방법, 성적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고민을 먹는 닭, 디지털 성범죄 OUT! 등 부스를 운영하였다. 여자답게, 남자답게 무의식적으로 길러진 언어와 문화적 차별을 살펴보고 바뀌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학교축제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성적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래 성문화에 대한 공감과 비판의 시각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04 ~~~~~

사춘기놀이터

사춘기 놀이터는 몸의 신체적 발달과 마음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몸 활동을 통해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차별들을 발견하고 나 다음으로 성장하는 데 돕고자 하였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과 나의 경계 존중의 의미를 배우고 스스로 성적 주체자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부평생활문화공간에서 9월 8일(기본과정), 9월 15일(심화과정)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놀이를 통해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05 ~~~~~

어린이 안전지역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고 통학로 주변의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파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한 환경 등을 찾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별수업 진행을 통해 학급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 알게된 위험요인과 안전한 환경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림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 안전지역 선정 22개동 초등 4학년 118개 학급, 총 2770명이 성폭력예방 및 안전, 위험 요인 이해와 학교 주변 환경 파악하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지도 만들기 사전 교육 후 조별활동으로 안전지도를 만들고 사례를 공유하여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알기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문의 032-500-2251~4

상담문의 032-500-2250

홈페이지 http://www.icbp.go.kr/open_content/gender/

위치 7호선 삼산체육관 3,4번 출구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성문화센터

VIEW
FINDER 4

나와 타인 모두 존중받는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평등한 Club 소모임 지원



부평구문화재단은 2018년 부평(富平) 지역 명에 담긴 '평등'에 주목하여 지역 내 다양성을 일깨우고, 차이를 이해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평등한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여성, 이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된 평등한 시리즈는 평등한 Market(마켓), 평등한 Gender(여성 집담회), 평등한 Research(연구), 평등한 We(우리) 등 7개 프로젝트로 부평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소수자의 표현활동 증대와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된 평등한 Club(모임) 지원을 소개하고

자 한다. 평등한 소모임 지원은 소수자가 드러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육성하는 것과 소수자의 생활문화 공간, 공동체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평등한 C_소모임 지원

평등한 시리즈를 실행과정에서 합류한 소수 단체와 소수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졌다. 평등한 7가지 소모임에는 이주여성, 미얀마 카렌족 난민, 페미니

스트, 중년 여성, 경력단절 경험자 등이 참여했다. 친목도모와 자기개발 과정을 통해 개인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원데이클래스, 독서모임, 영화관람 등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차이로 인한 차별을 겪는 사람들이 결집하여 주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지자들을 만났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감을 표했다.

7개의 평등한 소모임

1 인천여성민우회 <지비시즌>

'지비시즌'은 지랄 맞은 비체들의 독서&영화 모임의 줄임말이다. 혐오발언, 일상화된 차별, 공공장소·길거리 괴롭힘, 물레 촬영에 대한 불안은 스스로 조심해서 해결되지 않으므로, 안전할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이 퍼져 불평등한 사회문화를 드러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20대~50대 여성들이 차별적인 성정치 작동방식을 풀어나가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영화 관람 및 책 토론을 통해 젠더의 가치를 발견하였다.

2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다맘>

'바다맘'은 바느질 하는 다문화 엄마의 줄임말로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습득을 돕고,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재봉틀 사용방법을 배우며 자기개발을 시도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재봉틀 사용 방법을 배우고, 안 입는 옷으로 작은 소품을 제작하는 등 생활 속 기술을 나누며 서로간의 친밀감을 쌓는 과정을 거쳤다.

3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자치회의>

부평 동수역 부근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이

거주(2015~2017년 약 85명 이주)하게 되어 한국인과 미얀마 난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한국사회의 유대감 강화가 요구되었다. 한국말이 서툰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의미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미얀마 카렌족 초, 중고등부의 방과 후 학습에 관한 내용 및 일정 협의, 미얀마 카렌족의 자체적 월례회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4 다들빛이주여성연합회 <엄마의 맛 쿠킹클래스>

엄마의 맛 쿠킹클래스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모국의 음식을 자녀와 이웃에게 소개하는 원데이클래스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착 후에도 이주여성들의 친밀도는 모국별로 나뉘어져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부족했고, 자신의 문화적 특색과 가치관을 드러내기보다는 한국 문화의 순응을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주성과 한국토박이가 어울려 국가별 전통음식을 만들면서 이주민들의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인천평화캠프 <나뻥모녀>

'나뻥모녀'는 나 뻥터지는 모임 있는 여자아이의 줄임말로 여성들의 갯년기 증상을 공유하고 극복하고자 결성되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건강강좌, 수다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공연 관람을 통해 풍요로운 중년의 삶을 가꾸어나가는 시도를 했다. 여성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갯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노하우를 쌓아나가고 있다.

6 리폼맘스 <업-사이클 전문가 연구모임>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표현활동과 창작활동을 펼치는 업사이클 전문가 모임을 만들었다. 업사이클 전문가를 지향하는 여성들이 모임과정에서 환경도서를 읽고 재활용 강의 이론을 만들고, 재활용 체험교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재활용 프로그램을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이 학교에 시범적으로 실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7 부평공예마을 <문화다양성 스터디모임>

부평 마을기업, 시민단체 등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다양성 실행단체 네트워크 멤버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스터디모임을 진행했다. 타 단체의 사업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공간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각기 활동 안에서 발견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VIEW
FINDER 5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평구문화재단은 2018년 11월 8일, 부평구문화재단의 후원회원, 시민회원, 문화나비가맹점주, 자원활동가들을 초청해 <2018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후원회는 2015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출범한 시민회원과 문화나비가맹점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시민참여형 기부문화와 부평구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부평구 관내 6개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챙기며 시간과 열정을 후원하고 있다. 이런 관심과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도 참 고맙습니다”라는 타이틀로 <2018 후원의 밤>을 마련했다.

부평구의 문화를 함께 일구는 사람들

2018 후원의 밤

“올해도
참 고맙습니다”



PART. 1

함께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행사의 1부는 부평아트센터의 갤러리꽃누리에서 진행됐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상주단체인 '인천신포니에타'의 축하연주로 문을 열고 재단대표 권한대행인 황유경 기획경영본부장의 인사와 최도현 후원회장의 인사, 주요 내빈 소개, 그리고 신회식 후원회 고문의 건배제약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아기자기하게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보낸 시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당일 갤러리꽃누리에는 11월 9일 진행되는 부평구문화재단 <제5회 화이트 세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미술품 감상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훌륭한 작품의 소장 기회와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자선경매 행사인 <화이트 세일>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생활 속 문화향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자리였다.



PART. 2

나눌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2부는 자리를 옮겨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2018년 후원사업 보고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후원회와 시민회원, 문화나비가맹점, 역대 지원사업 소개 등과 더불어 2018년 지원사업들의 주인공들인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출연진,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아몬드>의 연출의 특별한 마음을 담은 감사 인사까지 담겨 회원들에게 뿌듯한 보람을 안겨주었다. 특별공연으로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포크밴드 '자전거 탄 풍경'이 무대 위에 등장했다. 아름다운 노래와 재치있는 진행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해 주었다. 행사의 마지막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자리로 풍성하게 완성됐다. 2019년에도 함께 문화를 일구며 기쁨을 나누는 자리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치는 아쉬움을 달랬다.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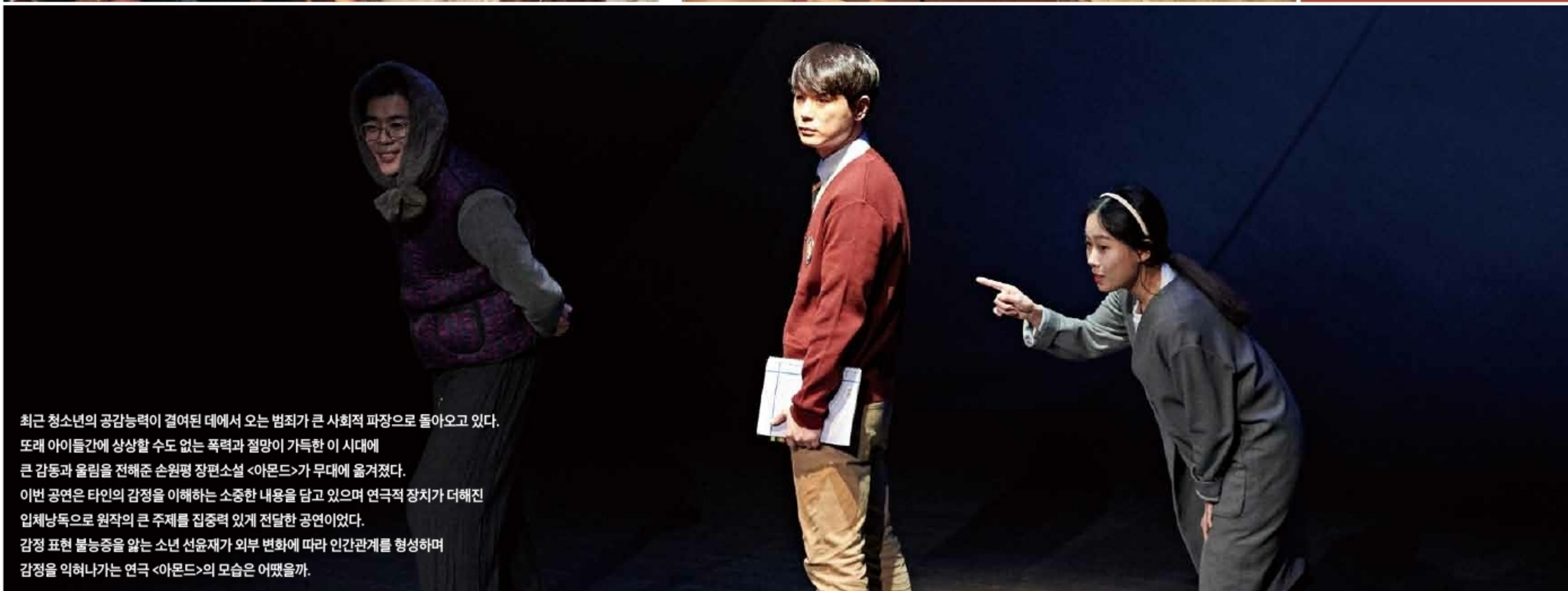
최은영, 김나래, 김유래 — 시민회원
혼자 부평아트센터 브런치콘서트를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민회원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부개도서관 시민대학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후 아트센터 공연을 보게 되고 공연이 너무 좋고, 공연장도 좋아서 그때 시민회원에 가입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강아지풀>을 보았는데 시민회원이라 할인된 가격으로 보았죠. 오늘 후원회밤에 와보니 시민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참 좋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도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 해서 망설였는데 와 보니 너무 반겨 주셔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음식도 너무 맛있네요.





연극 <아몬드>

계절과 음악을 만나 감정을 익혀가는 이야기



최근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결여된 데에서 오는 범죄가 큰 사회적 파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래 아이들간에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큰 감동과 울림을 전해준 손원평 장편소설 <아몬드>가 무대에 옮겨졌다. 이번 공연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극적 장치가 더해진 입체낭독으로 원작의 큰 주제를 집중력 있게 전달한 공연이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는 소년 선운재가 외부 변화에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감정을 익혀나가는 연극 <아몬드>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난 2018년 11월 29일 오전 11시(목)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으로, 손원평 장편소설 공감 불능 사회, 차가움을 녹이는 이야기 <아몬드>가 그 막을 열었다. 소설 <아몬드>는 2018년 9월 기준 판매 20만부를 돌파하며, 201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를 위해 추천한 100종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공감 불능 사회의 차가움을 녹이는 이야기 <아몬드>를 연극적 장치의 공연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그리고 있다.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열여섯 살 소년 선윤재와 어두운 상처를 간직한 곤이, 그와 반대로 맑은 감성을 지닌 도라와 윤재를 돕고 싶어 하는 심 박사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전하고 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열여섯 살 소년 선윤재.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하는 소년은 타고난 침착성과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에 별 탈 없이 지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이던 열여섯 번째 생일날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는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윤재 앞에 '곤이'가 나타난다. 놀이동산에서 엄마의 손을 잠깐 놓은 사이 사라진 후 1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곤이는 분노로 가득 찬 아이이다. 곤이는 윤재를 괴롭히고 윤재에게 화를 쏟아 내지만, 감정의 동요가 없는 윤재 앞에서 오히려 찢절매고 만다. 그 후 두 소년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윤재는 조금씩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된다.



● 소설 <아몬드>를 원작으로,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공감 불능 사회의 차가움을 녹이는 이야기 <아몬드>가 연극적 장치의 공연으로 재탄생되었다.

출신들의 젊은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2005년 창단된 인천신포니에타가 생생한 라이브 음악으로 주인공들의 성장을 표현하며 극의 매력을 더했다.

이번 <아몬드> 공연에는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험적 연극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앤드씨어터 전문한 연출이 함께 제작에 참여했다. 공연 형식의 실험과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위해 2008년 창단된 앤드씨어터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연극을 지향하고 있다. 앞서 <도처의 헛릿>, <창조경제_공공극장편>, <터무니 있는 연극X인천>, <말들이 돌아오는 시시시 시간>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몬드>의 메시지를 앤드씨어터만의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무대에 올렸다. 표현 불능증 앓는 소년의 변화를 인간관계 대한 생각 또는 물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연주도 볼 만했다. 현악을 전공한 인천지역

우리는 정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척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러나 감정이 없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안다. 연극 <아몬드>는 생(生)음악이 극과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현악5중주가 될 때 주인공은 결국 공감하게 된다. 소설의 대사를 읽어주는 구조의 연극이기 때문에 배우의 대사를 찬찬히 되새겨보자. 내가 주인공 선윤재가 되어 표현불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니. 이 공연은 11월 29일 오전 11시, 12월 6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 30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총 4회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공연을 제작하고자 했던 기획의도처럼 청소년 단체관람객으로 극장을 매워졌고, 전석 매진되어 부평아트센터의 제작 노하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ZOOM IN
2

아직도 '미술작품 경매'는 나와는 거리가 있고 어렵고 부담스러운가. 그렇다면 부평옥션을 주목하라. 부평구문화재단에서 기획한 '부평옥션'이 경매의 신선한 패러다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경기는 바닥이지만 부평옥션은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예술 향유와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미술품 자선 경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개최한다. 올해로 5화째를 맞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특별한 기부 문화를 만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재단과 작가가 함께 나눔의 뜻을 모아 예술로 사랑을 실천하는 전시로 자리매김 하면서 지역 미술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진 작가들에게는 홍보와 판매의 길을 여는 기회를, 기성 작가에게는 작품으로 사회공헌의 기회를 그리고 관람객들에게는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해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지난 11월 9일 오후 7시 인천시 부평구문화재단 갤러리 꽃누리에서 미술품 자선 경매인 '5th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이 진행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주관해 올해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작가, 낙찰가, 기관이 한마음으로 자선의 뜻을 모은 미술유통으로, 예술을 통한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뤄낸 뜻깊은 자리였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1부 메이저 세일(Major Sale)에서는 중견작가의 작품이 2부 커팅엣지(Cutting Edge)에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으로 나눠 회화, 사진, 조각, 도예, 일러스트 등 총 81점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다수 작품들의 가격은 미술품 자선 경매라는 취지에 맞게 전시 가격,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 내빈들의 축하인사와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경매 수익금 5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경매에서는 아트토이 베어브릭을 차용하여 주목받고 있는 팝아트 임지빈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오랜 시간 구민들의 시각예술 향유를 위해 애써 온 지역의 중견작가들, 부평영아티스트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전도유망한 신진작가들,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여 회화, 사진, 조각, 도예, 일러스트 등 다채로운 장르의 크고 작은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 참석한 시민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출품된 다수 작품들의 가격은 미술품 자선경매라는 본 행사 취지에 맞게 전시가격,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출품되었다. 경매 후 최종 낙찰금액 절반은 낙찰자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었다.

참여하는 작가와 응찰자 모두가 귀한 뜻을 모아 진행되는 전시인 만큼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해가 갈수록 그 의미와 가치의 특별함이 더해지고 있다. 11월 2일부터 8일까지는 프리뷰 기간으로 출품된 작품들을 사전에 만나보고 서면으로 사전 응찰에 참여했으며, 11월 9일(금) 경매 당일에는 전문 경매사와 함께 생생한 경매 현장의 열기를 느끼며 응찰, 참관했다. 올해도 경매는 '1박2일', '더 벙커' 등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에게도 이름을 알린 스타경매사 김민서가 진행했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11월 2일(금)부터 25일(일)까지(월요일휴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전시되었다.

참여작가

강지만, 고진이, 광동희, 김기섭, 김선우, 김원진, 김이슬, 김한울, 다니엘경, 민을, 박미경, 박영희, 박재영, 백인교, 성태훈, 송광찬, 예성호, 육효진, 윤서희, 이세린, 이승희, 이영애, 이진우, 임지빈, 임찬미, 전보경, 전화순, 정혜민, 조규창, 천성숙, 한성민, 한아름, 한윤기, 홍정희

MINI INTERVIEW



고진이 — 작가

저는 기억의 공간을 유화물감으로 표현하는데 사진이나 기록물 참고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려지는 기억의 이미지나 감정을 색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낙찰된 그림은 과거 살고 있는 집 정오의 햇살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부평이 고향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평 옥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데 전시에 낙찰까지 이어져 뜻 깊습니다.

유쾌하고 따뜻한 경매의 새로운 얼굴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마경남 의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현장에서 다양한 중견과 젊은 작가 작품을 보기도 하고 옥션의 기회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좋은 행사가 구민에게 더욱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낙찰받은 작품은 그 금액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수작이기에 기쁘고 나아가 낙찰금의 50%가 기부가 된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는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ZOOM IN
3

컬러 그라운드

색에 대한 즐거운 경험 부평아트센터와 함께하다



회색빛 도시에 컬러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색(Color)'은 인간의 시각각을 자극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색에 대한 즐거운 경험은 우리의 정서에 아주 매력적인 자극을 선사한다. 지난 9월, 10월 두 달 동안 부평아트센터에는 알록달록 기분 좋은 색의 향연이 벌어졌다.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 야외광장조각전시 <컬러 그라운드Color Ground>가 바로 그것.

#색(color)의 매력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전시는 오랜 시간 예술가들의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자리해온 '색Color'을 주제로 했다. 색에 대한 조각, 설치 미술 등 5명의 작가예술가들의 다양한 표현과 인식을 담은 작품을 통해 익숙한 색을 이색적으로 선보였다.

#푸른 하늘 그리고 색(color)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삼아 초록잔디에는 최성임 작가의 <붉은 나무>가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백인교 작가의 <LOVE BREEZE>는 알록달록 얇은 선으로 공간을 만드는 미지의 공간을 만들었다. 용세라 작가의 배너 작업은 부평아트센터 주변을 가득 채우는 30여 개의 컬러 이미지 배너로 온통 광장에 나부끼게 했다. 특히 거대한 크기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임지빈

작가의 대형 베어 브릭 <Space IN Love>와 김계현 작가의 <앵무새 케이지>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는 포토존의 역할을 담당했다.

#예술 속 색(color) & 일생의 색(color)

관람객들은 이 전시를 보며 그간 무심하게 지나쳐왔던 색이 예술가들의 빛나는 표현력을 빌어 얼마나 다채롭게 재탄생하는지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일상 속의 색을 인식하는 데 작은 변화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색(color)은 예술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그저 '바라보는 색'을 너머 온몸으로 '경험하는 색'이길 바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시를 감상하고 난 후 관람객들의 얼굴은 그간 마주했던 모든 것들의 색과 매일 바라보던 자연, 공간, 사람들이 입은 옷까지 더 생생하고 다채롭게 보이는 듯 더욱 밝게 빛났다.



김계현,
<블록 베어링>



김계현,
<앵무새 케이지>

임지빈,
<Space in LOVE>



최성임,
<붉은 나무>



백인교,
<러브 브리즈>



백인교,
<컬러 플>



김계현,
<블록 타워>



부평구의 자랑,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은 개관한지 2년 만에 부평 주민들의 여유와 문화예술 체험과 향유의 공간으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 동안 주민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알리고자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해 '일상을 6유쾌하고 8팔팔하게'라는 주제로 부평생활문화센터와 부평대로의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는 그동안 같고 닮은 동아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전시, 체험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지친 일상의 여유를 찾음과 동시에 문화 예술의 체험과 향유를 통해 지역의 주민이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풍물대축제와 즐겁게 소통하고 화합할 기회가 되었다. 이번 축제는 일주일간 50여개 팀 6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8일부터 13일까지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다목적홀에서 부평생활문화센터 내 공간을 이용한 동아리 전시가 진행되어 방문객 및 대관자, 동호인들에게 미술문화 향유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인 <부평풍물대축제>와 함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컸다.

시민들의 흥, 제대로 터지다

13, 14일에는 부평대로 부평시장역 근방에 설치되는 특설시민무대를 중심으로 <부평생활문화축제>가 축제의 흥을 이어갔다. 시민체험존과 함께 진행되는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베풀어졌고 부평구문화재단 소속의 문화예술동아리와 생활문화센터 내 <문화즐기기> 및 <공간지원사업>로 창출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서 기량을 뽐냈다. 특설시민무대에는 음악과 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40여개의 동아리가 30여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13일 밤 시민무대가 끝나고 DJ 파티도 같은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특설시민무대 앞 시민체험존에서는 '붓돌'의 캘리그래피 체험, '폴리네시안 댄스팀'의 홀라댄스 소품 만들기 체험, '자수하라'의 자수 체험, '아트트리'의 가족 팔찌, 부엉이 고리 만들기 체험, '한국오카리나 앙상블'의 오카리나 만들기 체험 등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진행하고 만드는 모임인 '생활문화추진단 시:음'의 기획 부스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생활문화추진단 시:음'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을 매개로 씨실과 날실을 엮어가는 직물 공예인 태피스트리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부평구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나갔다.



1일상을 6유쾌하고 8팔팔하게
'공감168'과 함께하고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 전야제 "Shall We Dance?" 공감 오픈파티 개최

2018 부평생활문화축제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의 지원사업인 <공간지원사업-공감스페이스>의 회원, <프로그램 지원사업-문화즐기기>의 회원, <생활문화 지원사업-생활문화추진단 시·읍>의 단원들과 부평아트센터 문화예술 등록동아리 회원, 동아리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한 콜라보 프로그램의 회원 등 총 50여개팀 600여명이 한데 어울려지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주민 주체의 자율적인 만남과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를 몸소 느끼고 참여하는 2018부평생활문화축제는 전야제 <공감 오픈 파티>로 시작되었다. 2018부평생활문화 축제를 준비하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의미와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미리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4개 동호회 대표 인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크댄스 레슨과 체험이 이어졌다.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문화즐기기> 사업 중 포크댄스 수업을 이끄는 김기순 선생님의 지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포크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해 굳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레슨 후 모두가 환성을 부르며 기와 열정이 넘치는 포크댄스에 몸을 맡겼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1층 카페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함께 교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INTERVIEW



무용장르 '폴리네시안 댄스'
박금옥 회장

하와이와 타이티안 댄스를 즐기는 동아리로 지난 4월에 문화참여형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이 이름으로 지원, 심사하고 통과해 강좌를 개설했다. 쾌적한 공간과 감사비를 지원받아 즐기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 홀라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데 비록 낮은 장르지만 오전반, 직장인 저녁반, 아이들반 3개반으로 구성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2008년에 <홀라걸>이란 영화를 보고 생활 속 춤에 반했다. 홀라는 간단한 손동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춤이다. 서정적인 댄스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폴리네시안 댄스'는 부평생활문화센터의 <문화즐기기> 프로그램로 감사비를 지원받고 공간을 지원한다. 지역분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 지역 축제에서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음악장르 '부평풍물아리랑보존회'
심해량 회장

부평아리랑은 처음 들어보았을 것이다. 부평아리랑을 직접 만들었고 노래에 풍물과 전통혼례를 접목했다. 부평풍물아리랑보존회는 2005년 결성해 2009년에 시인등단 자격으로 인천부평아리랑 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현재 부평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으로 부평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하며 어떤 것이 부평에 보탬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부평풍물아리랑 이름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



미술장르 '봇들'
조선옥 회장

소중한 한글을 가지고 손글씨를 쓰는 동아리이다. 캘리그라프를 통해 한글을 다양하게 쓰고 작업하는 심화 연구 동아리로 작품으로 실생활에 접목하도록 만들고, 전시하고 대회 출품, 판매, 재능 기부도 한다. 이번 축제에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물병에 예쁜 글씨를 적어서 나만의 물병을 만들고 수첩, 손거울 등 나만의 작품을 작업하게 된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등록이 되어 올해부터 활동하게 되었고 지원금도 받아서 심화학습 강의를 듣고 체험활동을 하게 되었다. 생활문화센터 회원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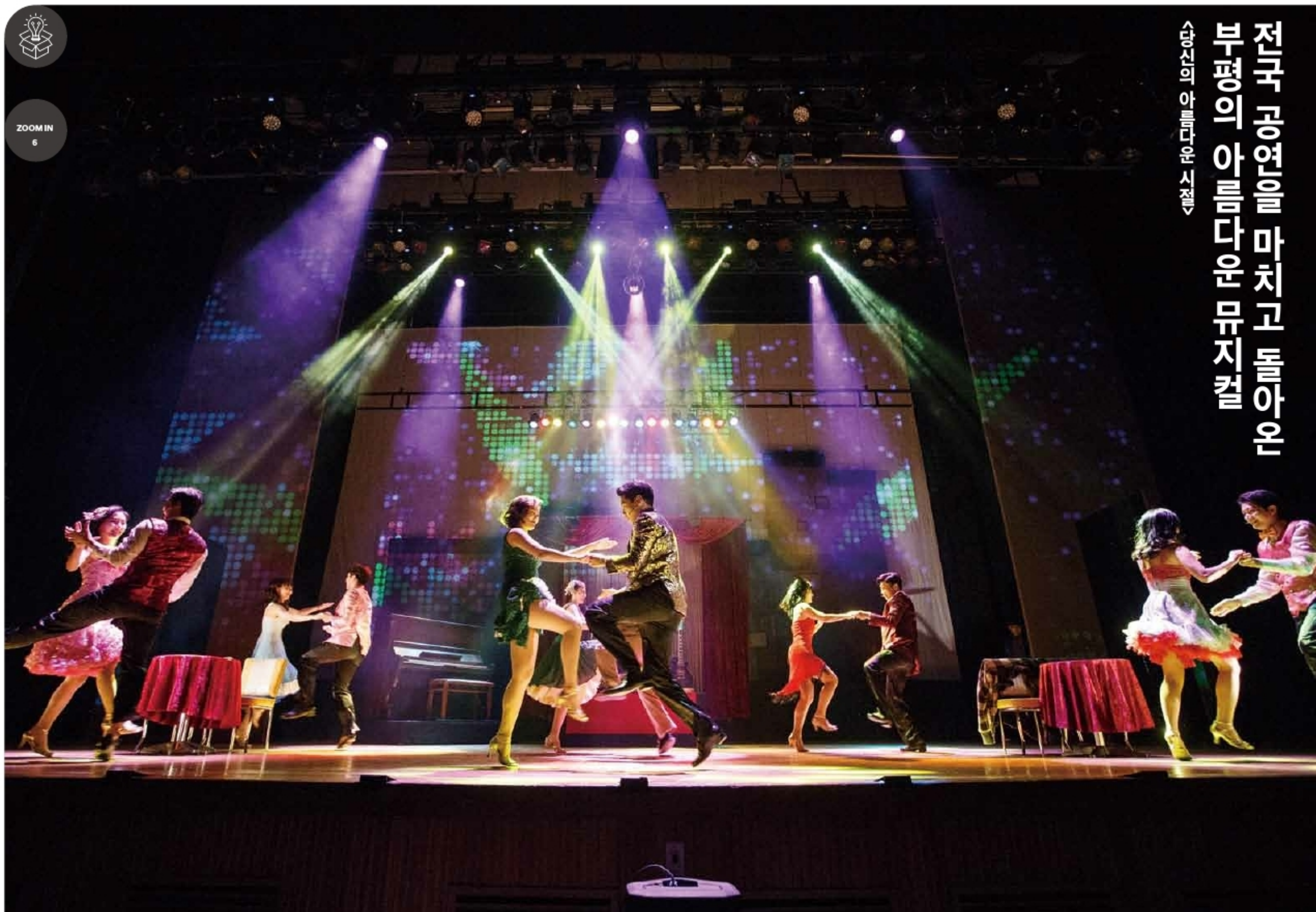


댄스장르 '바일라 톰박스'
황성현 운영진

직장인 춤추는 사람들이고 주로 K-pop을 하는데 비보이, 힙합, 재즈 등 여러가지 댄스를 익히고 있다. '바일라 톰박스'는 스페인어로 '춤춰라 엉덩이'의 뜻이다.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간지원사업 '공감스페이스'의 수혜단체인데 수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주말에도 저렴한 대여료로 좋은 공간을 지원받는다. 동호회 만든 지 1년 정도되었는데 첫 공연하면서 결속을 다지게 되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응원 바란다.



ZOOM IN
6



전국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부평의 아름다운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부평의 지역적 특성과 예술성을 그대로 담은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하 당아시)의 성장세가 확실하게 느껴졌다. 이제 지역 문예회관 등에서 공연 요청이 오고 명실상부 부평의 대표 뮤지컬로 자리하고 있다.

점점 진화되는 〈당아시〉의 2018년 버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더욱 깊어지고 화려해진 무대와 연기자들의 감정이 공연의 성공을 반증해주었다. 12월에 보면 가장 좋은 뮤지컬,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어렵고 힘들었지만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부평의 이야기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부평의 모습을 그려낸 〈당아시〉는 2018년에는 11월 17일 예산공연을 시작으로 11월 23일, 삼척, 11월 30일 무안 공연을 마친 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평 공연으로 마무리하는 전국 순회 공연을 실시했다.

부평의 미군부대인 애스컴 영내 외 클럽이 우리 대중음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뮤지션들의 애환과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호성 연출가는 "한류 음악 태동지로서의 부평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하고자 시작한 뮤지컬이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5년의 세월을 흘렀다. 예산도 톡 없이 부족했지만 작품을 만들어야 할 이유와



명분만으로 겁없이 시작했고 이제 그 성과를 보고 있다. 10년째 되는 날 다 함께 기쁜 축제의 파티를 열고 싶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당아시>는 전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인공 용생과 동료들이 부평 에스컴 미군 부대 오디션에 도전하며 음악에 대한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이다. 공연의 주된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올드 팝과 ‘노오란 샤스의 사나이’ 등의 1950~60년대 가요는 한국 대중음악의 60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음악이 미장센 역할하는 최초의 뮤지컬

<당아시>는 한국 대중음악 60년의 뿌리를 찾아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려내면서 팝, 블루스, 밴드 음악 등 그 시절을 살아온 이들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이 되었던 음악을 세련된 편곡으로 다시 풀어냈다. 이경화 음악감독은 “그 시절 유행하던 음악이기에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따라 불렀고 지금까지 불리는 곡들이라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흥얼거릴 수 있는 곡으로 선곡했다. 가난하지만 꿈을 쫓아가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는 내용의 가사를 선곡하였다. 선곡된 음악을 듣고 우리의 작품을 보며 마음에 사랑과 꿈을 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과 꿈, 둘 다 놓치지 않다

주인공 용생은 ‘음악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며 무엇이든 집중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청년으로, 2018년 버전 용생 역은 최동호 씨가 연희역은 정재은 씨가 각각 연기했다. 2018 <당아시>는 극작, 연출, 스텝, 배우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공연으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대사, 캐릭터를 사랑스럽게 하는 의상, 아스라한 과거 향수가 느껴지는 무대, 무엇보다 배우들의 호연이 가장 빛나는 공연이었다.

올드팝을 듣는 즐거움, 추억을 소환하다

이 작품은 5년의 공연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꾸준한 각색과 연출로 극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50~60년대 초반 골든 팝송을 전면 배치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Love me tender’,



MINI INTERVIEW



전태일 — 부평공연 관람객
2016년에 보고 너무 멋있어서 다시 친구들과 함께 연말에 함께 공연 보러 왔습니다. 공연보고 에스컴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박물관 에스컴 전시도 다녀오고, 산 위에서 에스컴 공간도 찍어보고, 에스컴 근무하셨던 어르신들 미군들과 같이 근무했던 한국사람, 동네분들께 설명을 듣기도 했어요. 세상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이 있나 싶어 꼭 보여줘야 할 사람들을 초대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김영옥 — 예산공연 관람객
주인공의 성공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주인공이 오디션에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 시절에 한계를 딛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공감이 갔어요.



김현성 — 예산공연 관람객
70년대쯤 부평에 살았는데 그 때 생각도 나면서 옛날 시절 가슴에 와 닿고 아스라한 기억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공연 하신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신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연들이 예산에서도 많이 있었주길 바랍니다.

‘Changing partner’ 등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30여 곡의 다양한 음악들이 편곡되어 불려졌다. 용생이 음악을 통해 꿈을 성취하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함께 ‘Don’t be cruel(엘비스 프레슬리)’, ‘Too Young(넛 킹 콜)’, ‘Let’s twist again(처비 체커)’,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최희준)’, ‘노오란 샤스의 사나이(한명숙)’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감동을 선사했다. <당아시>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201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우수 전문예술법인단체 인증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대표상을 수상했다. 이후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년, 2018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우수공연 2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제작이 시작되었던 2014년부터 <당아시>는 부평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부평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음악과 함께 완성도 높은 무대 연출과 연기력까지 그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꽃꽃
저녁에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멀리서 본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숨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숨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특별출연 시인 나태주
감독 배우 김희정, 최승일, 이진성, 이보라
연주 피아노 이승윤, 바이올린 이은지, 첼로 박동규, 소프라노 여나현
진행 조현주 사랑방운영팀장
시 꽃꽃, 멀리서 본다, 내가 너를, 사랑은, 황홀극치, 선물,
11월, 사랑은 언제나 서른다, 떠나야 할 때를, 혼자서, 보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그리움, 외롭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외

따뜻한 감성과 낭만적인 선율이 함께했던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는 '만남, 사랑, 이별,
그리움'의 컨셉으로 짙은 가을밤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11월 30일 저녁 7시 30분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연극배우들이 시를 낭독하는 동안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짙은 가을밤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공연은 관객들의 높은
호응속에서 진행되었고, 나태주 시인은 "시인이
이렇게까지 대접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수준높은 공연이 인천의 수준으로 느껴진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며
"컨셉이 너무 좋아 이 공연을 책으로 낸다고 해도
허락하겠다"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미리 준비한 관객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한 후 계획에 없던 시인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유쾌한 이야기를 30여분간 전하며 열기 가득한 공연을
마쳤다. 공연 후에는 관객들이 준비해온 시집에 시인의
사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성 가득 시를 담은 사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출연자와 관객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랑방과 잘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 이영훈 새 대표이사로 취임



부평구문화재단이 이영훈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부평 출신인 이영훈 대표이사는 1979년 공직 임용 이래 40여 년간 부평구에서만 근무한 지역 행정 전문가로, 총무과장, 경제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이 대표이사를 문화재단의 현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재단 발전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수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평구 주민들을 위한 세밀한 문화 발전 방안을 실행중이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민관협의회 출범

지역주민, 문화예술인 등 위원 14명 위촉, 지역이 함께 만드는 음악도시 부평 기대



부평구문화재단부평구문화재단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지난 27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온 지역 주민과 예술인 8명을 포함해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총 14명이다. 시·구 의원 및 문화도시 전문가는 2019년 1월 추가로 위촉되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추진 현안 협의, 의결하는 등 기능을 맡게 된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부평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지역과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음악융합도시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부평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클럽이 성행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음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인천교통공사 1호선역무안전센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인천교통공사 1호선역무안전센터(센터장 김유수)과 12월 20일(목) 오전 11시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평구청역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작은갤러리를 운영 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시설

물을 관리하는 상호 협업 활동 전개를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가 1호선 역무안전센터는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 홍보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유 및 협업, 부평구청역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힘쓰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김유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갤러리에서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 이영훈 대표이사는 "협약 체결을 통해 작은 갤러리 운영 뿐 아니라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 앞으로도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문화로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2
1
왼쪽부터
인천교통공사(1호선역무안전센터) 김유수 센터장,
부평구문화재단 이영훈 대표이사
- 2
왼쪽부터
인천교통공사(1호선역무안전센터)
신용차장, 이항상 부장, 김권수 부평관리역장, 김유수 센터장,
부평구문화재단
이영훈 대표이사, 송종준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사랑방운영팀장

미리



보다

2019년 부평구문화재단은 더욱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음악회로 신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순도 높은 이야기로 채워진 연극무대와 부평작가들의 숨으로 탄생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더없이 즐거운 키즈페스티벌로 다시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생활터전 곳곳으로 찾아가는 콘서트와 브런치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추억을 돌게 하는 음악제 등은 2019년에도 어김없이 계속됩니다.

여전히 감동과 배움, 행복은 덤입니다.

Calendar

What's next

-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
- 연극 <진실> <거짓>

WHAT'S NEXT 1



2019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



일시

4.25(목) 11:00
5.23(목) 11:00
6.27(목)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박상원(사회), 클래식안 앙상블(연주자)

문의

032-500-2000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평아트센터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

2019년에는 배우 '박상원'의 문학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한가로운 낮 11시 배우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에서 중년을 건너는 세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안나 카레니나와 마담 보바리가 들려주는 유혹에 지지 않는 법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 쇼스타코비치 - 현악 4중주 제9번 내림마장조, 작품117
- 크라이슬러 - '사랑의 기쁨' 외

둘, 나는 누구인가? 리어왕이 묻고 아류가 답한다

- 슈만 - 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44, 2악장
- 슈베르트 - 첼로 5중주 다장조, 작품956, 2악장
- 드로르작 - 현악 4중주 제12번 바장조, 작품96 '아메리카'

셋, 내 인생의 다시 봄! 조르바와 춤추고 돈키호테와 모험하라!

-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 오른철 - 마리오네트의 춤
- 드뷔시 - 꿈
- 미셸 - 뮤지컬 <앤 오브 라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

WHAT'S NEXT 2



리얼 부부공감 블랙 코미디

연극 <진실×거짓>

일시

진실 : 4.19(금) 19:30, 4.20(토) 15:00
거짓 : 4.20(토) 18:3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35,000원

관람연령

17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알리스 - 배종옥, 미셸 - 김수현·이도엽,
폴 - 김진근·이형철, 로렌스 - 정수영

문의

032-500-2000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

'폴로리앙 젤레르'의 연작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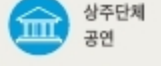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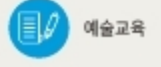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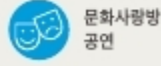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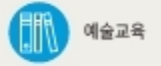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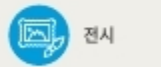
<진실>과 <거짓> 두 개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연작 형식의 작품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네 명의 인물이 서로 다른 상황과 입장을 통해 '친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랑과 우정을 위한 '배려 넘치는' 거짓말의 향연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찔한 상황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인생의 외로움과 무게를 서로 밀고 당기는 왈츠처럼 우아하고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01

02



우리 가락, 우리 소리로 맞이하는 2019

2019 신년음악회



일시	1.25(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국립국악원 정악단·창작악단·민속악단·무용단, 계성원(지휘), 남상일(소리), 박용호(단소), 진쇠(사물놀이)
문의	032-500-2000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학과 연꽃의 궁중 무용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을 무대에 올린다. 국립국악원의 무용단, 창작악단, 민속악단, 관현악단을 통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리 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소리꾼 남상일의 구성진 민요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과 부평의 사물놀이 진쇠가 함께하는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을 선보인다.

PROGRAM

- **궁중정재 학연화대처용무합설** : 국립국악원 무용단·정악단
- **서도성주굿** :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 **프론티어 작곡·공연**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수상곡 작곡·공연** : 박용호(단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국악관현악과 장타령 편곡·공연** : 남상일(소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 작곡·공연** : 진쇠(사물놀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프로그램은 공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극으로 돌아온 이청준의 원작 소설 소리극 <서편제>



일시	2.22(금) 19:30, 2.23(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5,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조엘라, 안이호, 황애리, 김준경, 윤영걸, 황현빈, 안덕용
문의	032-500-2000

'서편제'는 이미 판소리, 영화, 뮤지컬, 창극으로 진화하며 사랑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이다. '소설'과 '판소리'라는 장르가 가지는 섬세한 전달력은 뮤지컬이나 창극보다는 연극 작품으로 공연되었을 때 원작 소설의 품미와 정서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릿재 주막을 주 무대로 하여, 시공을 넘나드는 연극성과 무대와 관객의 열린 구조는 소설 '서편제'가 소리극 <서편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사이사이 바로 코앞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주요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는 점은 소리극 <서편제>의 가장 큰 매력이 될 것이다.

부평작가들의 예술세계를 심도있게 조명하는 부평작가열전 여섯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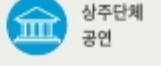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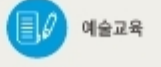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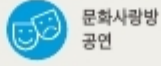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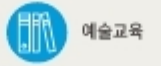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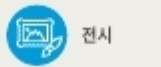
일시	2월~3월 중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관람가
문의	032-500-2062

올해 부평구문화재단의 첫 번째 기획전시 부평작가열전은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이다. 오랜 시간 부평구의 시각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온 지역 작가들의 창작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구민들에게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예술의 온기를 가득 전할 예정이다.



03

04



과정드라마(Process Drama)형 연극놀이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일시	3월~4월 중 매주 수요일 16:00~18: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2학년 / 15명
참가비	20만원(총 10회)
문의	032-505-5951

신나는 연극놀이와 함께 극 중 탐험대원이 되어, 감각나라와 감정행성으로 여행을 떠난다. 친구들의 감각과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연극학교



일시	3.9(토)~7.20(토) 매주 토요일 14:00~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대상	초등 2~6학년 / 40명
참가비	20만원(총 20회)
문의	032-500-2065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연극 공연으로 학생 모두가 제작의 전반과정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다년간 전문적으로 연극 교육을 이끌어 온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무대에서

'본다'와 '듣는다'는 경험을 전달하고, 연극 놀이를 통해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배운다. 수업의 마지막은 어린이들이 직접 진행하는 연극으로 폭넓은 예술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 지금 만나



일시	3월 중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내
대상	부평구 생활문화동호회
신청·접수	2월 중 홈페이지 접수
문의	032-500-2069

부평구에는 어떤 생활문화동호회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양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소통하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파티이다. 또한 부평 생활문화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부평생활문화센터와 부평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다 스쿨 오브 뮤직

일시	3월~7월 중
장소	부평아트센터 밴드부스 등
대상	중등 1~3학년 / 40명
참가비	20만원(총 16회)
문의	032-500-2065

감성발달에 중요한 음악 및 악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술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램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악기 연주를 배우고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고 함께 들어본다. 또한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사회성과 인성 함양을 이끌어낸다.

리얼 부부공감 블랙 코미디 연극 <진실> <거짓>



일시	진실-4.19(금) 19:30, 4.20(토) 15:00 거짓-4.20(토) 18:3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35,000원
관람연령	17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알리스 배종옥, 미셸 김수현·이도연, 폴 김진근·이형철, 로렌스 정수영
문의	032-500-2000

<진실>과 <거짓> 두 개의 공연으로 이루어진 연작 형식의 작품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네 명의 인물이 서로 다른 상황과 입장을 통해 '친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랑과 우정을 위한 '배려 넘치는' 거짓말의 향연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찔한 상황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인생의 외로운과 무게를 서로 밀고 당기는 왁자지껄 우아하고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04

그림책을 통한 우리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그림책놀이터



일시 4월~5월 중 매주 월요일

16:30~17: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6~7세(만 5~6세) / 13명

참가비 12만원(총 8회)

문의 032-505-5951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전문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예술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본 수업은 독서치료와 미술치료 전문가가 진행하는 수업으로 프로그램 중, 학부모 개별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예담 : 청년, 공연장을 움직이다 Season 3

일시 4월~5월 중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및 달누리극장

대상 문화예술계 종사를 희망하는 예비 기획자 및 지역의 대학생

참가비 5만원 (총 10회)

문의 032-500-2065

현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실무 적용과정까지 진행되는 실무 통합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주제의 강의를 비롯해 이론교육부터 현장실무에 이르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분야 기획자 및 기술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19 부평아트센터 브런치 콘서트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



부평아트센터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

2019년에는 배우 '박상원'의 문학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한가로운 낮 11시 배우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에서 중년을 건너는 세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4.25(목) 11:00 / 5.23(목) 11:00 / 6.27(목) 11: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박상원(사회), 클래식 안상블 외 다수

문의 032-500-2000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 안나 카레니나와 마담 보바리가 들려주는 유혹에 지지 않는 법

- 비제 -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 모차르트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 쇼스타코비치 - 현악 4중주 제9번 내림마장조, 작품117
- 크라이슬러 - '사랑의 기쁨' 외

둘, 나는 누구인가? 리어왕이 묻고 아류가 답한다.

- 슈만 - 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44, 2악장
- 슈베르트 - 첼로 5중주 다장조, 작품956, 2악장
- 드로르작 - 현악 4중주 제12번 바장조, 작품96 '아메리카'

셋, 내 인생의 다시 봄! 조르바와 춤추고 돈키호테와 모험하라!

-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 오펜베르크 - 마리오네트의 춤
- 드뷔시 - 꿈
- 미첼 -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



05

노래가 있는 인형극 꽃 피우는 아이



일시 5.2(목)~5.7(화) 평일 10:30, 토 14:00

*5.5(일)~5.6(월) 공연없음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진 아동청소년연극집단 무동

문의 032-500-2000

프랑스 작가 모리스 드뤼옹의 책 <꽃 피우는 아이 티스투>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노래와 인형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공연이다. 주인공 띠뚜가 정원사 무슈타슈 아저씨와 만나면서 겪게 되는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철학적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담아낸 이야기다.

복적복적 키득키득 예술과 놀자!

부평키즈페스티벌



일시 5.5(일) 11:00~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일대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문의 032-500-2000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부평키즈페스티벌! <어린이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 우리 동네 나눔 장터, 무료 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부평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부평키즈페스티벌'이 2019년에도 계속된다. 온 가족이 다함께 부평키즈페스티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현대미술 나들이 가정의 달 기획전시



일시 4월~5월 중 10:00~18: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문의 032-500-2062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렵고 딱딱한 현대미술을 친근한 주제로 풀어낸 유익한 전시를 진행한다. 현대미술은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대중적인 주제의 작품들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어린이부터 청장년까지 아우르는 소재와 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9 부평키즈페스티벌

어린이 그리기대회



일시 5.5(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참가대상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참가방법 사전접수 및 대회 당일 현장 접수

문의 032-500-2062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어린이 그리기 대회>는 관내 어린이 대상의 공모전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축하여 신뢰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발된 아이들에게 수상과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재능을 발굴하고 독려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내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의미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제20회 정기연주회



일시 5.16(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부평구립여성합창단

문의 032-500-2000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평의 역동성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힘차고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특히 신비로운 여성합창의 매력과 박력있는 혼성 합창, 강렬한 타악 퍼포먼스 등 20살의 성년으로 성장한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기량을 맘껏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무대로 읽는 문학극장 창작뮤지컬 <九(구)>



일시	5.17(금)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5,000원
관람연령	11세 이상 관람가
문의	032-500-2000

창작뮤지컬 <九(구)>는 1949년 6월 26일 김구 암살 현장에서 시작해, 회고록 <백범 일지>를 토대로 청년 김창수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담아낸 '인간' 김창수를 조망한 작품이다. 민족의 지도자 또는 영웅으로만 다뤄졌던 김구의 사건들을 청년 김창수의 성장기를 통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과정들을 재조명한다. 불행했던 민족 역사의 선봉에 섰던 김구가 존재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그를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통해 역사적 위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구와 함께 조국을 위해 헌신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부평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다 2019 부평술아술아음악제



일시	5.26(토) 19:00
장소	부평공원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문의	032-500-2000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 창조적인 도시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2019 부평술아술아음악제>로 교감과 치유의 자리를 마련한다. 대중가요를 통해 부평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부평아트센터 우수 클래식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일시	6.21(금)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리처드 용재 오닐, 다니엘 정, 유치연 쟁, 스티븐 리, 김한 외
문의	032-500-2000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주축으로 2007년 시작된 앙상블 디토는 클래식과의 공감을 모토로 시작, 슈베르트 '송어', 브람스 피아노 4중주 1번, 차이콥스키 '폴로렌스의 추억' 등 실내악에 있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흥행 레퍼토리, 그리고 클래식 스타들을 잇달아 탄생시키며 매년 6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9년 12번째 시즌을 맞아 팀의 리더였던 용재 오닐이 마에스트로의 길로 접어들며, 앙상블 디토의 마지막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시즌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디토 연대기다. 그들의 눈부셨던 음악적 여정을 부평아트센터를 통해 따라가보자!

PROGRAM
· 슈만 - 피아노 5중주, 작품 44
· 모차르트 - 현악 3중주 디베르티멘토, 1악장
· 모차르트 - 클라리넷 5중주, 1악장
· 헨델 - 파사칼리아
· 바흐 -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
* 프로그램은 공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창출·활성화 사업 생활문화학교



신청·접수	5월 중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선착순)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기간	6월 ~ 12월 중
문의	032-500-2069

2017년부터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문화강좌현 프로그램 <문화즐거기>를 <생활문화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진행한다. <생활문화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주민이 직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나아가 동호회를 창출하여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생활을 넘어서 '스스로'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생활문화활동'에 참여해보시기 바란다.

부평아트센터 2019 상반기 시즌 패키지

시즌패키지란?
부평아트센터의 기획 공연을 테마별로 묶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패키지입니다.
할인이 팡팡! 문화가 팡팡!
지금 바로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를 구매해보세요!

시즌패키지 예매방법



엔티켓 enticket 전화예매
1588-2341
온라인 예매 불가

예매수수료 :
예매 건당 1,000원 고객부담

패키지 유의사항

- 자유 패키지는 R석, S석으로 선택 가능하며, 전 작품 동일등급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 1개 이상 공연관람 이후에는 공연변경과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상품 구매 후, 취소 및 환불 가능(부분 취소 불가)
- 공연별 예매상황에 따라,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 예매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1일 전 오후 5시 (1일 전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 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야장애석은 패키지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브런치 패키지

2019 브런치 콘서트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

하나, 안나 카레니나와 마담 보바리가 들려주는 유혹에이지 않는 법
4.25(목)

둘, 나는 누구인가?
리어왕이 묻고 아류가 답한다.
5.23(목)

셋, 내 인생의 다시 봄!
조르바와 춤추고 돈키호테와 모험하라!
6.27(목)



3 작품 모두 선택 시, **30%**
전석 **45,000원 → 31,500원**

자유 패키지

소라극 <서편제>
2.22(금)~2.23(토)

2019 브런치 콘서트 박상원의
<클래식으로 듣는 문학 이야기>
4.25(목), 5.23(목), 6.27(목)

노래가 있는 인형극 <꽃 피우는 아이>
5.2(목)~5.7(화)

창작 뮤지컬 <九(구)>
5.17(금)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6.21(금)



4 작품 이상 선택 시 **40%** 할인 6 작품 이상 선택 시 **50%** 할인
R석 **150,000원 → 75,000원**
S석 **140,000원 → 70,000원**

스페셜 얼리버드 할인

2.1(금) 까지
2019년 상반기 패키지 구매 시 추가
10% 할인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소개



돈든한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② 신청문의 032-500-208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홈페이지 후원자-기업명 표기 / 분기별 후원회 소식지 발송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기업/개인	후원회	후원회	후원회	후원회	후원회
기업/개인	해누리 (5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구름 (3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외 (1백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개인	가람 (5십만 원)	-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후원해주시는 분들

달누리	외
최도현 (주)대원인물 대표이사	맹익재 (주)글라이젠 대표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꽃누리	이혜민
노태손 씽크빅문고 대표	박옥진 前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낙경 (주)한밭기술 대표이사	강경애 리디안 우쿨렐레
서태호 (주)난다 고문	오케스트라 단장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박경윤 박경윤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박영식 부평단위농협 감사
정규형 의료법인 한길안과 이사장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가람
이광복 (주)동서식품 대표이사	신희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조덕형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윤대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별누리	최창석 은성산업 대표
홍종국 삼한여객 대표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박홍식 (주)부평역사 대표이사	안중영 정수미크론 대표
함국종 (주)부원산업 대표	신종백 심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주송 (주)대경아이스 대표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배정태 더페이스샵 대표	조정애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목사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오종석 (주)한국통운 대표이사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한유순 (주)우신컨텍 대표이사
기종현 (주)연우 대표이사	정지연 (주)광원건설 회장
심수일 (주)상정가스공업 대표이사	이계찬 (주)자인조경 대표이사
김성국 거궁 대표	김유환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구름	황영희 가현텍스 세무사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윤일영 의회사무국장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상무	고동희 극작가
배수진 (주)승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고현영 안국노무법인 대표
전봉운 (주)부평환경 대표이사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허춘석 (주)동일환경 대표이사	정하주 유한광고 대표
안용현 (주)한국그린환경 대표이사	박창호 (주)인영자동차공업 대표이사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정혜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신미영 디자인넷 대표
권영조 (주)영매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최병윤 (사)서도창배병이 연구보존회 부이사장
정광훈 유카스에너지 대표이사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소개



시민회원&문화나비 가맹점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과 문화나비가맹점은 정기 후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1. 시민회원

- 방문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온라인신청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 재단소개 → 시민회원 → 시민회원 가입하기

2. 문화나비 가맹점

- 방문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3. 신청문의

032-500-2084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후원회	후원회	후원회
기업/개인	연 12만원 이상 (월 1만원 이상)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10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8매
시민회원	연 6만원 이상 (월 5천원 이상)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4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4매
	연 3만 원 (연간납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4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2매
문화나비 가맹점	연 36만 원 (월 3만 원 납부)	-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30% 할인 / 1인 10매 - 부평아트센터 시즌패키지 50% 할인 - 기획공연 및 패키지 티켓 선 예약제 실시 - 회원 음악회 <후원의 밤> 초청 / 1인 8매 - 문화나비 가맹점 현판 부착

※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 신청 가능)

